

Vol. 72

2025년 문우 여름호

문우의 눈



지상의 달, 옥상에 올라간 사람들

수습편집위원 해로



참고1 이 글은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한국오피컬하이테크지회의 이지영 사무장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글의 중간에 따옴표와 함께 기재된 내용은 해당 인터뷰의 인용이다. 여러모로 분주한 상황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신 이지영 사무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참고2 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근로자'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뜻해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부지런히 이행하는 자'라는 문맥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 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 형태의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노동조합 등 여러 법적 용어에서 이미 노동이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본 글에서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0. 지상의 달, 옥상에 올라간 사람들

구미시 구포동에는 불탄 채 삼 년째 방치된 9층 건물이 한 채 있다. 내부는 그물러 있는데 건물의 외벽에는 온갖 스티커와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이상한 공간이다. 그곳의 옥상에 사람이 한 명 산다. 겨울에는 달의 이면처럼 차가워지고 여름에는 금성처럼 뜨거운 곳. 이곳에서 박정혜 씨는 벌써 일곱 번째 계절을 나고 있다.

정혜 씨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의 수석부지회장이다. 본래 이 공장의 노동자였던 정혜 씨가 마지막으로 맨땅을 밟았던 것은 500일도 더 전이다. 니토덴코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까닭이다.

“고공농성은 땅에서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한 노동자들이 하늘 가까운 높은 곳에 올라 부당함을 호소하는, 10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위 방법입니다. (...) 노동자가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문제해결을 위해 간절함을 전달하기 위해 선택하는 투쟁 방법인 것 같아요.”

고공농성이란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기 위해 회사 건물, 혹은 회사가 보이는 고층 구조물의 꼭대기에서 진행하는 농성을 뜻한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평양의 노동자였던 강주룡의 농성이 최초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투쟁 방식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은 드물지만, 꾸준히, 매번 큰 각오를 안고 위로, 위로 향했다. 대표적으로 한진중공업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사례가 있으며, 쌍용자동차의 해고자들도 이와 같은 고공농성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정혜 씨 외에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로는 세종호텔의 해고자인 고진수 씨를 꼽을 수 있다. 세종호텔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코로나19에 의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현재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인 2025년 6월 19일까지 고공농성을 진행하다가 임단협¹이 타결되어 극적으로 땅을 밟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김형수 지회장도 고려하면, 생각 외로 많은 노동자들이 동시에 공중에서 투쟁을 진행한 것이다.

1 임금과 단체협약의 준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하는 협상으로, 주로 임금과 노동시간, 복리후생, 노동조건 등을 협의한다.

고공농성을 진행하는 노동자는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생활을 좁은 고공 공간에서 해결한다. 식사는 지상에서 투쟁하는 동료 노동자들이 준비한 뒤 도르래 등의 도구를 통해 위로 올려보내 주고, 목욕에는 샤워용 물티슈 등을 이용한다. 정혜 씨처럼 건물 옥상에서 농성할 때는 조금씩 걷는 등의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좁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농성이 많아 쉽지는 않다. 세종호텔 해고자인 고진수 지부장의 경우, 비좁은 지하차도 안내 구조물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어 걷기 위한 공간조차 매우 부족하다. 정혜 씨처럼 옥상에서 농성을 진행하더라도 여전히 제대로 된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 체력이 많은 부담이 되고, 바이러스 등에도 취약해져 건강 이상이 생기기도 쉽다. 최소한의 건강 유지를 위해 왕진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하지만, 워낙 열악하고 좁은 장소에서 모든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충분한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고공농성은 단식투쟁이나 분신과 유사하게,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혜 씨는 왜 이런 투쟁을 감행한 걸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투쟁까지 감행하며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1. 누구도 옥상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만 그래야 할 뿐

“공장 철거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고공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용 승계가 되기 전까진 절대 내려올 수 없다고 하고 있죠.”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에 위치한 니토덴코 사의 자회사로, 스마트폰 등에 활용되는 편광필름을 비롯하여 다양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니토덴코와 같은 해외 기업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큰 혜택을 받는다. 국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는 명목에서다. 특히 니토덴코의 경우 구미시로부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임대료를 50년간 감면받은 바 있다. 이 경우 지방에 위치한 구미시의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수혜의 정도가 유난히 컸다.

그러나 이런 혜택 하에 설립되었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9층 공장은, 2022년 10월 화재가 발생한 후 가동을 멈춘 상태다. 화재로 인하여 니토덴코는 1300억 원의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때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의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되었다. 이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물량이 전부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에 이관되었다. 화재를 명목으로 법인을 청산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더니, 동일한 본사의 자회사인 자매 법인으로 물량을 완전히 옮겨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니토덴

코는 고용 승계를 요구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들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평택에서 156명의 노동자를 신규 고용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외투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지만, 기업이 철수할 때는 고용 유지나 책임 경영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떠안고 있습니다. 외투기업의 철수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일견 비상식적으로까지 보이는 이러한 횡포는 외투기업²에 대한 미비한 규제를 바탕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투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가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극단적으로 말하여, 외투기업이 국내의 각종 혜택만 누리 후 돌연 철수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철수 이전에도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인접한 지역만 보더라도 대구의 한국게이트, 영천의 다이셀코리아의 노동자들이 이미 유사한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이보다도 다양한 사례와 고발이 쏟아진다. 국가가 마땅히 개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수년에 걸쳐 이어진 노동권 침해 행위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2. 그날, 삶의 터전 앞에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지영 사무장께 고공농성에 돌입하던 당시의 이야기를 소상히 들을 수 있었다. 이하의 내용은 인터뷰의 내용에 자료 조사를 더하여 줄글로 풀어낸 것이다.

화재 이후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청산과 구미 공장의 철거를 자극히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아직 노사 간에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미비한 규제를 방패로 노동 현장을 완전히 삭제하려고 든 것이

2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받은 기업을 말하는데, 1억 원 이상의 투자, 주식의 10% 이상 취득 등 다양한 조건을 바탕으로 한다. 니토덴코의 경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다. 노동자들은 구미시에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당장의 철거는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였으나 구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년 1월 8일, 구미시에서 니토덴코가 요청한 해당 공장의 철거를 승인하리라는 소식을 노동자들에게 미리 통보한 것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노동자들은 긴급히 공장 사수에 나섰고, 이것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의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뒤편에 위치한 공장은 확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해당 공사의 노동자들이 새벽 중 공장의 위치를 혼동하여 옵티칼 지부에 진입했다. 철거 승인 예정 통보로 인해 긴장해 있던 옵티칼의 노동자들은 이를 공장 철거를 위한 진입으로 오인하였다. 이 탓에 당시 현장에 있던 소현숙 씨와 박정혜 씨가 긴급히 공장 옥상으로 향했고, 그대로 고공농성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고공농성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 예정대로 공장의 철거를 승인하였다는 점이다. 건물이 철거되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청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그만큼 교섭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기에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건물을 사수할 수밖에 없었다.

3.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의 투쟁

그렇게 시작한 고공농성이 벌써 두 번째 여름을 지나고 있다. 본래 두 명이 진행하던 이 농성은, 소현숙 씨가 건강 악화로 인해 땅으로 내려오면서 박정혜 씨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니토덴코의 노동자 탄압에 정혜 씨만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혜 씨가 옥상을 지키며 철거를 막는 동안 동료 노동자들은 백방으로 뛰며 사측과의 교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니토덴코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회 청원을 통해 니토덴코를 청문회에 회부하는 일 등이 그 예시다. 이중 지난 5월 시작되었던 국회 청원의 경우, 쿼어 퍼레이드에 참여해 청원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QR코드로 공유하기도 했다.³ 결과적으로 5만 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하여 무사히 안건을 상임위로 회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문회가 개최되기까지는 최대 90일이 소요되는 데다, 현재 노동조합법 개선 등 계류되어 있는 중요 사안이 많아 신속한 개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청문회가 속히 개최된다면 국회를 통해 니토덴코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측에 압박을 가하고, 그를 통해 교섭을 시도할 수 있으리라

3 올해 쿼어 퍼레이드에 대한 정보는 본지의 ‘활동정리’ 중 ‘2025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후기’를 참고하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고용 승계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의 노동자들. 옥상에 보이는 소현숙, 박정혜 씨를 포함해 총 7명

고 기대된다. 또 저희는 니토덴코의 노동자 탄압 및 고용 불승계가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사측을 NCP에 제소하기도 했다. 해당 제소의 경우 1차 평가에서 대화 주선이라는 결과를 얻었고, 조정위원을 구성해 날짜를 조율 중이다. 지금까지 니토덴코가 노동자들과의 대화 자체를 일절 거부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제소가 첫 교섭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의 희망을 암시하는 지표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이 그간 이어 온 치열한 투쟁을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하다. 투쟁에 온 힘을 쏟다 보니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옥상에 있는 정혜 씨는 자신이 공공에 오른 뒤 태어난 조카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최근에는 치주질환과 온열질환, 바이러스성 장염 증세를 보이는 등 여러 건강 문제마저 겪고 있다.

“평택, 서울, 일본 등 왔다 갔다 하며 투쟁에 몰입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린 자녀가 있는 조합원들도 있고, 가족을 많이 못 챙기니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투쟁을 하면서 느낀 건데, 공공농성을 지켜보는 입장으로서도, 왜 노동자들은 본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심리적 힘들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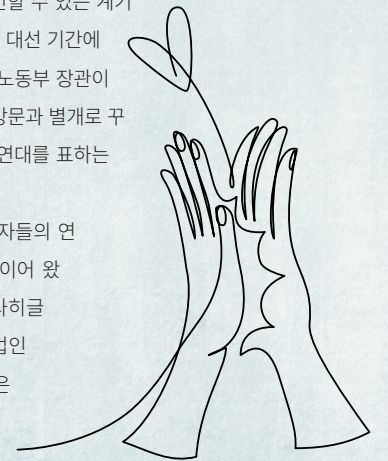
이지영 사무장 역시 이러한 고민을 인터뷰에서 나누어 주었다. 정혜 씨와 마찬가지로 투쟁하는 다른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일상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상태다. 사측에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4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이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일도 생기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른다.

4. 그럼에도 싸운다, ‘우리’이기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투쟁이지만, 저희는 3년째 투쟁하며 많은 연대 동지의 힘을 받았고 그 힘으로 같이 싸워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만의 투쟁이 아니라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싸워 연대 동지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맞이하고 싶어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든 투쟁을 500일 이상 이어오고 있는 것은, 이들의 투쟁이 ‘자신만의 투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고된 투쟁 중 노동자들은 동료 노동자들의, 또 시민들의 연대에 힘입어 왔다. 올해 초에는 여러 사정으로 현장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이 연대의 의미를 담아 인형을 전달했고, 구미에서부터 서울의 국회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희망뚜벅이’ 투쟁을 통해 투쟁을 알리기도 했다. 봄에는 불탄 건물의 외벽에 종이꽃을 붙이고, 깃대를 이용해 종이꽃을 옥상까지 전달하여 연대를 표한 시민들도 있다. 상술한 국회 청원의 경우 노동자들이 게시한 청원 페이지가 SNS를 통해 널리 전파되면서 목표 인원에도달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하는 많은 시민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6월 대선 기간에는 권영국 당시 대선 후보가, 올 7월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정치인들의 방문과 별개로 꾸준히 구미의 현장을 찾아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연대를 표하는 시민들도 있다.

조금 앞서 승리를 맛보았던 또 다른 동료 노동자들의 연대도 이어졌다. 구미시에서 무려 9년간 투쟁을 이어 왔던 아사히글라스의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교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법인 청산으로 해고당해 그 사유가 조금 달랐지만, 같은 구미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부당한 해고에 맞



서 싸웠다는 점에서 상황이 비슷하다. 아사히클라스의 노동자들은 옹티칼 공장을 직접 찾아 약식 집회에 함께하는 등 직접적으로 연대를 표했다.

이러한 연대 속에서, 또 동료 노동자들을 위해 ‘외투기업의 고용승계’라는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한국옹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들은 계속 투쟁한다. 이들의 목표는 승리해 기존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다. 지금껏 연대해 온 동지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얼굴도 알 수 없는 다른 노동자들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이들의 청사진에 담겨 있다.

5. 우리에게도 ‘우리’인 그들

“저희 투쟁을 주변에 소개해 주시거나 외투기업의 문제들을 널리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을 ‘함께’라는 힘으로 이어가는 노동자들에게는 더 크고 단단한 연대가 필요하다. 구미에 직접 찾아가 연대를 표할 수도 있고, 인형 보내기 캠페인과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마음을 표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지영 사무장의 말대로 투쟁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트위터(현 X) 등의 SNS를 통한 정보 공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용자층이 보다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공유가 연대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뜻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말 한마디가, 그게 어렵다면 게시글의 공유 한 번이, 또 마음이 닿는 대로 표하는 ‘함께’의 마음이 모여 연대가 된다. 특히 지난 5월에서 6월 간 이어졌던 청원과 같이, 국회 청원 등에 동참을 요청하는 글을 알리고 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일한이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우지만, ‘우리’를 위해 싸우기도 한다.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하게 될 수많은 ‘우리’를 위해서. 광장에서 이름도 성격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치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서로 다른 ‘나’를 위해. 때로는 그 서로 다른 ‘나’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편견 어린 시선 아래 놓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양보할 수 없는 의지를 위해서. 그러니 지상의 달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자. 박정혜라는, 또 고진수라는 이름의 ‘나’를 위하여,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응해 주신 이지영 사무장의 말씀을 전한다.

“저희 투쟁은 외투기업의 책임을 묻는 투쟁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고용승계의 선례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그 길에 많은 동지들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추가하는 말

지난 8월 29일,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고공농성을 종료하고 600일 만에 땅을 밟았다. 그러나 한국옹티칼하이테크의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가 실시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 신정임, 『우리 같이 노조해요』, 오월의봄, 2024
- 손가영, “97일 고공농성 끝, 땅 밝은 김형수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길 열자””, 프레시안, 2025.6.19,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1916463159043>
- 김영화, “한국케이츠, 대구공장 31년 만에 폐업...노동자 150명 ‘해고 위기’”, 평화뉴스, 2020.6.29, <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169>
- 김보현, “외투기업 다이셀코리아, 무상임대 끝나는 시점에 일방적 폐업 논란”, 뉴스민, 2022.5.19, <https://www.newsmmin.co.kr/news/72295/>
- 최하나, “이기적인 ‘말벌’ 동지가 목격한 영화보다 영화 같은 순간”, 오마이뉴스, 2025.5.25, <https://omn.kr/2dq1i>

나는 기억되고 있습니까?



편집위원 단화



1. 소년의 의문



소년은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방향 없이 생각한다.
 저 사람들은 왜 모두가 행복한 얼굴일까? (...)
 항상 피곤한 마음과 뚝 떨어진 신발에 양이 일다 버린
 전 때뭉리 옷을 입어야 하나.
 누구 하나 그 소년의 의문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¹

지난 7월 20일, 전태일 열사의 목소리를 담아낸 음악극 <태일>이 막을 내렸다. <태일>은 2인극으로 진행되는데, 태일 목소리 역을 맡은 배우와 태일 외 목소리 역을 맡은 배우가 각각 나와, 전태일과 전태일 주변 인물(어머니, 여동생 순옥, 바보회 동료, 근로감독관, 평화시장 여공 등)의 목소리를 전한다. 음악극 <태일>은 뜨거웠던 열사 전태일이 아닌, 따뜻했던 청년 전태일의 인간적인 모습을 주로 다룬다. 이 곡은 대사와

1 조영래, 『전태일평전』, 아름다운전태일, 2020,(25쪽) (책의 내용이나, 음악극 <태일> 노래의 가사이기도 하다. 책의 구절과 노래 가사/대사가 겹칠 경우, 가사/대사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가사를 전부 실제 전태일의 수기와 조영래의 『전태일평전』에서 가져오면서, 인간 전태일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진솔하게 관객에게 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열사’ 전태일보다 ‘인간’ 전태일을 그리고자 한 음악극 <태일>의 취지를 이어받아,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썼던 한 명의 ‘노동자’ 전태일, 따뜻한 청년 전태일을 중심으로 ‘노동’ 이야기를 할 것이다.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외치며 분신한 지 올해로 55주기가 되었다. 전태일 시대 이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노동하고 있을까? 음악극 <태일> 속 전태일이 겪은 6-70년대의 노동 환경과 비교하였을 때, 작금의 노동 환경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음악극 <태일>이 왜 계속 공연되어야 하는지, 그의 목소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닿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러한 환경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화시장의 여공들은 대부분 12~14세의 어린 소녀들이다. 이 소녀들은 하루 14시간씩 한 달 내내 휴일 없이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받는 급여는 50원. 당시 물가 기준으로 고작 커피 한 잔 사 마실 수 있는 돈이다. 재봉보조공이었던 전태일은 교통값을 빼면 남는 것도 없는 월급 3000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교통비를 아껴 여공들에게 한 개에 1원하는 풀빵 30개를 사주곤 했다. 자신은 교통비가 없어 청계천 6가부터 도봉산까지 3시간을 넘게 걸어가는 수고를 감내하고서라도 말이다. 매일 같이 여공들이 겪는 참상을 목도한 태일은 죽어가는 여공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우리를 비정한 현실의 쓰레기로 만드는 저 잔인한 노동조건을 내 힘으로 바꾸어보자’²는 생각을 하게 된다.

2 조영래, 『전태일평전』, 아름다운전태일, 2020,(156쪽)

극 중에서 여공들은 ‘조느라 작업 밀리면 안 되니까 잠 달아나는 주사를 놔줄 테니 졸지 말고 일해라’, ‘일하다 손가락 잘리면 시집 못 간다’, ‘평화시장 여공 8년 차에 얻는 거라곤 온갖 병치레에 노쳐녀 신세 뿐이니 그만뒀라’ 등의 말을 들으며 일을 한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태일은 여공들의 일을 도와주며 그들을 살뜰히 챙기지만, 여공은 “재단사님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욕도 안 하고 청소도 거들어 준다고. 근데 그거 당연하게 여겼다가 댄 데 가서 고생하니까 아쉬운 소리 말고 뭐 부탁하지 마 이년들아! 이랬어요.”라고 말한다. 같은 노동자를 존중하고, 구박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는 게 특이하고 이상한 일인 것인가? 왜 전태일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당연하게 여기면 다른 데 가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근래 세 차례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파리바게트의 제빵기사는 80% 이상이 여성이다. 2022년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당한 제빵기사의 절반이 근골격계질환을 겪고 있고, 호흡기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10명 중 1명꼴로 생리불순, 난임, 유산을 겪기도 하였다. 이는 SPC 계열사인 SPL 공장의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6 대 4로 여성노동자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노동환경이 여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대다수의 보호장비는 ‘표준 미국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은 밀가루나 분진 등이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노동 환경 속에서, 남성에게 맞춰진 무의미한 보호장비를 사용해야만 했다.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역시 남성과 여성의 신체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크기로 제작되어 여성 노동자들에게 위협적이다. 성별의 구분없이 단일한 사이즈의 작업복을 사용하여 체구보다 큰 작업복을 입고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남성 노동자보다 기계에 작업복이 낄 위험이 크기에 사고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거나, 근속기간에서 차별을 받는 등의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기도 한다.³ 2022년 10월 15일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는, 2023년 8월 8일 성남 샤프너공장에서, 2025년 5월 19일 시흥 시화공장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 3명 모두 여성이지만, SPC는 여전히 여성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평화시장에서 어린 여공들이 재봉틀에 손가락이 베이고, 화상실도

3 박다해, “20kg을 수시로 들며 일했던 SPC 여성노동자”, 한겨레21, 2022.10.29.,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792.html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먼지구덩이 작업장 속에서 피를 토하고 다치고 죽어나간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생리휴가의 보장은커녕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잦은 생리불순을 겪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술한 차벌 속에서 노동이 이루어진다.

태일의 여섯 식구 중 돈을 버는 사람은 전태일 하나뿐이었다. 태일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재단 기술로 남들보다 빨리 월 7000원의 급여를 받는 재봉사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월 3000원 받는 재단보조공이 되겠다고 나선다. 집의 가장이었던, 여섯 식구의 생계를 홀로 온전히 책임지던 태일에게 이와 같은 결심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하루 열 몇 시간씩 일하여 작업물을 완성하면, 그제서야 주인과 공장장 둘이 상의하여 가격을 멋대로 정해버리니, 태일은 피땀 흘린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아주 큰 공장을 제하고는 공장장이 따로 없고, 재단사⁴가 공장장을 겸하면서 재단사 한 명당 노동자 20명을 거느리게, 태일은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노동자의 편에 서서 주인과 타협할 수 있는 재단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서 태일의 재단사 친구 김개남(가명)이 등장한다. 개남은 평소 조용하고 말씨 없던 태일이 책을 옆구리에 끼고 노동 운동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며 열띤 이야기를 늘어놓는 모습을 보고 그가 존경스러웠다고 말한다. 자기는 그저 돈 벌 생각만 했지 근로기준법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이다. 태일이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1960년대,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노동 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많아봤자 얼마나 있었겠는가. 당시 생소했던 노동 운동에 대해, 특히 시다들 편의 봐준다고, 시다들이 해야 할 일 대신 해 줬다고 태일을 해고하기 일쑤였던 당시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뜻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는가. 하지만 태일의 재단사 친구들은 그 어려운 일에 기꺼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하였다. 노동자 모두를 위한 평화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평화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4 6-70년대 의류 공장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맨 아래의 시다를 시작으로 연차에 따라 재봉사, 재단사 손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재봉사와 재단사 아래에는 각각 재봉보조공과 재단보조공이 존재한다. 보통 시다에서 재봉보조공이 되기까지만 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리며, 재봉보조공에서 재봉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몇 년이 걸린다.

태일은 시다들의 편의를 보겠다는 이유로 업장에서 해고 당한 후, 평화시장의 재단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모아 '바보회'를 결성한다. 태일은 자신이 해고 당한 것보다도, '최소한의 인정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을 물질 기계로 만드는' 당시의 노동 현실을 더 답답히 여겼다.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아서라 말아라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신세 망치는 건 너희들 뿐이다"라는 가사처럼, 여섯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일해야 했던 태일에게 노동 운동은 실질적 도움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다. 하지만 태일은 바보회 구호로 이렇게 외친다. "기계처럼 일만 하다 죽느니 사람답게 사는 바보로 살자." 태일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노동자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이었기에, 기계처럼 부당한 현실 속에서 헛바퀴 돌리듯 살 수 없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투쟁했다. 그리고 태일은 바보회 결성 이후, 평화시장 내 위험분자로 찍혀 어디에서도 태일을 받아주지 않게 되었다.

태일이 바보회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평화시장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처럼, 오늘 날에도 여전히 노동 운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거나 부당해고를 당하는 노동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2023년 7월, 쿠팡CLS 일산 물류 캠프에서 노동조합을 알리는 홍보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택배노조 조합원 3명이 입차제한 조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캠프에서 물류를 받아 배송을 해야 하는 운송노동자에게 입차 제한은 해고 조치와 같으며, 명백한 노조 탄압이다. 1년이 지나 2024년 12월 대법원은 쿠팡CLS의 입차 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입차제한 관련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지만 아직까지도 쿠팡CLS 측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⁵ 2023년 대구에서는 대구 테크노산업단지에서 위치한 조양 한울 노동자 20여 명이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임금 삭감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가 고초를 겪었다. 긴 파업 끝에 회사로 복귀한 조합원들을 사장이 폭행하거나, 공장 및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방치하다가 조합원들에게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등의 온갖 비인간적 대우가 이어졌다. 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서에 명시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등, 돈으로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⁶ 노동

5 서비스연맹, "대법판결 무시하는 쿠팡CLS... 택배노동자, 복직촉구 철야농성 돌입", 노동과 세계, 2025.01.15., <https://work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377>
6 연정 르포작가, "[르포]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 "노동조합 혐오 중단과 노동조합 인정"", 노동과 세계, 2024.11.08., <https://work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855&page=2&total=860>

조합 결성 및 활동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기업의 노조탄압과 혐오가 법 위에 존재하는 권리인 것처럼 보인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패악', '노란봉투법의 최대 피해자는 기업' 등의 망언이 쏟아지며 노조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발언이 거침없이 이어졌다.⁷ 왜 세상은 아직까지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귀족노조', '건폭노조' 같은 혐오 표현을 내뱉는 것인가? 왜 같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범죄자이자 가해자로 낙인 찍으면서 기업은 선량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평화시장의 '위험분자' 태일은 여전히 이 세상 곳곳을 떠돌며 존재한다.

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후, 새로운 현실에 눈뜨다. 그는 평화시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지를 근로감독관에게 가져가 내민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그런 태일을 '참 특이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다른 일을 알아보면 될 것이지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들쭉거리고 다니냐며 설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를 돌려보낸다. 태일은 자신들의 부당한 노동 실태를 알리면 근로감독관이 들어줄 것이고, 그러면 '일할 맛 나는' 평화시장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단단했다.

지금도 70년의 태일처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는 노동자들이 있다. 금속노조 주얼리분회는 종로에 위치한 라임사업장 앞에서 지난 11월 4일 파업 선포 이후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종로 일대 귀금속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날카로운 도구와 화학약품을 다루는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보호장치가 없이 일한다. 산재의 위험이 큰 작업장인데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상과 질병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경에서는 재직증명서도 발급할 수 없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근무 이후 임금이 삭감되었지만, 동시에 야간연장 근무를 강요받고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야간수당은 지급받지 못해 노동 시간에

7 강한님, "'특공 계급' "귀족노조 패악" 여당, 말끝마다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2025.02.25.,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458>

비해 받는 임금은 턱없이 적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건강검진 실시를 비롯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요구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자 업체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당해야만 했다.⁹ 작금의 주얼리 분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55년 전 평화시장 여공들이 먼지 나는 다락방에서 환풍기나 조명 시설, 화장실 없이 일하면서 온갖 잔병치레를 달고 살아야 했던 실정과 무엇이 다른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투쟁해야 하는 현실은 1970년의 평화시장에서 2025년의 종로까지 그대로 재현되고 있을 뿐이다.

다 같은 인간인데. 와, 우째서?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아이들이 때묻고 부한 자들의 거름이 되어야 할까?
 빈부의 법칙입니까, 사회의 현실입니까? 나는 이게 아주, 아주 의문입니다.

태일은 우연히 노동청 앞에서 출입기자를 만나게 된다. 이를 통해 평화시장에서 혹사당하는 여공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게 되고, 극 중 여공은 고맙다는 의미로 신문값에 100원을 지불한다. 원래 20원이었던 신문을 무려 5배의 가격을 주고 산 것이다. 그러면서 여공은 “우리 이야기 신문에 나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이야기한다. 태일은 여공이 준 100원을 소중히 근로기준법 책 사이에 두고, 극의 마지막 장면까지 쓰지 않고 간직한다.

신문기사를 보고 노동청에서 나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나자 노동청은 전태일과 삼동회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 전태일은 시다 월급 100% 인상안과 창문 및 환풍기 설치를 비롯한 8개의 건의 사항을 내걸었지만, 노동청은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고 요구사항을 묵살한다. 태일은 그럼 빛 들어오게 창문 달고, 조명 시설 개선하고, 환풍기 달고, 화장실 늘리고, 여자들 생리할 때만이라도 쉬게 해 달라고 목 놓아 외치지만 근로감독관은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태일은 그럼에도 끝까지

8 손광모, “종로 주얼리 노동자에게 절실한 ‘4대 보험의 따듯함’”, 참여와 혁신, 2020.11.12.,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86>
 9 이상윤, “도심의 유령 ‘밀실해고 규탄, 노조탄압 중단’을 종로에서 외치다”, 노동과 세계, 2025.02.21., <https://work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541>

환풍기만이라도 달아달라며 소리친다. 뻔뻔한 태도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근로감독관에게 태일은 근로기준법 책을 내밀며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얘기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만약 노동청이 기업주들과 결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기업주들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 노동청 아니 그 이상까지도 상대로 하여 싸워야 할단 말인가? 이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기를 도대체 어떻게 바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저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 약마와 같은 현실의 벽은 도대체 얼마나 두꺼우며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인가?¹⁰

여공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신문에 나고, 태일이 직접 근로감독관을 찾아가도 바뀌지 않던 두꺼운 현실의 벽은 지금도 허물어지지 않았다. 부당해고로 인해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500일 넘게 고공농성 중인 한국유타칼하이테크 노동자들과, 2025년 2월부터 지금까지 100일 넘게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사람이 쓰러질 것 같은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 속에서 노동자들은 고공농성으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100일, 500일... 기약없이 늘아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담보로 고공농성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는 노동자들이 버젓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회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그들의 생명과 삶이 기업의 한두푼 이익과 비교하면 마치 쓸모없는 종이장인 것처럼 여기며, 그들이 이 세상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생명인 것처럼 무시한다. 마치 태일이 마주한 근로감독관처럼.

태일은 신문 한 귀퉁이에 난 기사 하나에 기뻐하며 계속 싸울 의지를 다졌다. 지금은 그때와 달리, 주류 언론이 다루지 않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주목하는 노동전문 매체가 등장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총파업, 공동투쟁 집회 등 수많은 노동자가 함께 연대하고, 거리로 나와 투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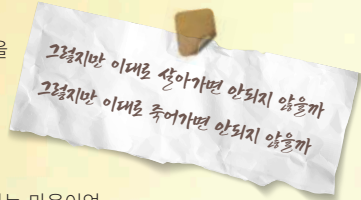
10 조영래, 『전태일평전』, 아름다운 전태일, 2020, (201쪽)



태일의 투쟁은 외로운 길이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는 게 별나고 이상하게 비춰지던 시대에서, 근로기준법 책을 옆구리에 끼고 동료 재단사들을 설득해 투쟁을 이어나가던 태일. 그는 노동자들이 억압받는 게 당연한 시대 속에서 외로운 길을 걸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권 보장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것을 깨달은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거리로 나와 투쟁할 것이다.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태일이 허물지 못한 현실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말이다. 이미 무수히 많은 금이 그어져 있다.

3. 그렇지만

태일은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떠난 후, 반복되는 아버지의 폭음과 매질을 피해 대구를 떠난다. 처음 서울로 올라올 때,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죽자는 마음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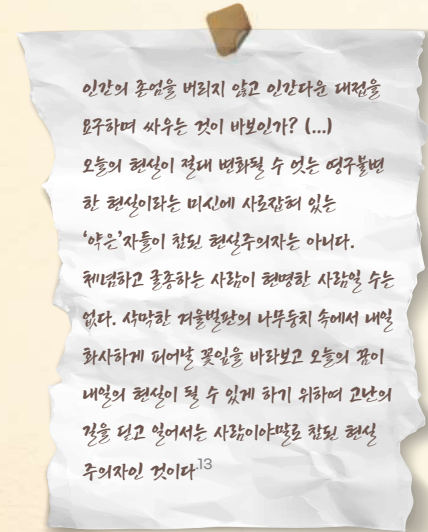
다. 태일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어머니, 가족이었다. 그런 태일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서는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 11월 13일¹¹ 아침, 그렇게 막내동생 손옥이를 아끼던 태일이 돈이 급하다며 부탁하는 손옥이를 뒤로 하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어떻게 몸에 불을 붙일 수 있었을까. 그 투쟁으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

태일은 인간의 나라를 꿈꿨다. 인간을 물질화하는 부한 환경도, 부유하고 강한 자들의 횡포와 탐욕도 모두 분해된 세상을 꿈꿨다. 자본가들을 위한 도구로서 기계 취급을 받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정 받기를, 괴로운 노동이 아닌 즐거운 노동을 하게 되기를 바랐다. 태일은 '소외된 밑바닥 인간들'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여, 그들이 자신을 가두는 억압과 착취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

11 1970년 10월 7일, 평화시장의 노동 실태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실린 후 노동청과 기업주들은 사회적 여론에 따라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도 잠시, 평화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들자 노동청과 기업주들은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 전태일을 비롯한 삼동회 회원들은 10월 24일 노동 환경 개선 촉구를 위한 데모를 열었고, 기업주들로부터 11월 7일까지 선처해 주겠다는 답을 듣게 된다. 그러나 11월 7일이 지나도 기업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분노한 전태일은 11월 13일 '근로기준법 회형식'을 열어 최후 투쟁에 나서게 된다.

랐다. 아가들 고사리 같은 손에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고, 매일 같이 참상이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삶을 도저히 못 본 척할 수 없던 태일은 주변에서 '노동운동 같은 신세 망치는 일 하지 말아라', '참 별난 사람이다' 등의 말을 들으면서도, 솔하게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싸웠다.¹² 평화시장을 언제나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고향으로 생각한 태일은, 어머니와 손옥이를 비롯한 가족만큼이나 평화시장의 노동자를, 모든 밑바닥 인생을 사랑하여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고 떠났다.

전태일의 사상은 노동 투쟁의 이정표이다. 앞서 언급한 금속노조 주얼리 분회 투쟁 현장에서는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4시, 4시 15분, 4시 30분, 4시 45분, 총 4회차에 걸쳐 '주얼리 분회와 함께하는 『전태일평전』 읽기' 시간을 가진다.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태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의미한 힘을 가진다.



12 조영래, 『전태일평전』, 아름다운전태일, 2020(, 315쪽)

13 조영래, 『전태일평전』, 아름다운전태일, 2020(, 181쪽)

지금의 노동자들은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 것일까? 이유는 전태일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하는 일이 당연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임금 체불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죽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 더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괴로움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을 위한 부자재나 도구로써 노동자가 쓰이고 버려지는 게 아닌, 존엄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노동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로 나와 소리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음악극 <태일>의 ‘바보회’ 가사처럼, ‘기계처럼 일만하다 죽느니 사람답게 사는 바보’가 되기 위해 거리로 나온 모든 노동자들에게, ‘되든 안 되든 들이받거나 죽자’ 결심한 노동자들에게, 아직도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준수’를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태일의 목소리를 전한다. 태일이 바라던, 깨끗한 환경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아프면 쉬고 일하다 다치면 제때 치료받으며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음악극 <태일>은 계속 공연될 것이다. 50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태일의 외침을 끊임없이 배우의 목소리를 빌려 전할 것이다. “나는 기억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름이 지닌 힘은 꽤 크다. 이름은 대상에 대한 정의이며, 각인이고 또 기억이다. 이름은 단순히 주민등록부에 올라가 있는 짧은 글자 몇 개가 아니다. 나를 정의하고, 너에게 기억되며, 타인에게 각인되는 것. 그렇게 내가 나로 불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름’이다. 그리고 여기 잊을 수 없고, 잊히지 않을 이름이 있다. 태일. 전태일. 어쩌면 ‘전태일 열사’, 이 다섯 글자로 우리에게 더 익숙할 그 이름. 이 글의 시작은 그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불러 보는 데에서 시작한다. 바로 음악극 <태일>이다.

우리는 전태일 열사를 어떻게 알고 또 기억하고 있는가? 그의 이름을 처음이자 가장 자주 접한 공간은 분명 교과서일 것이다. 경제 발전에만 사회적 관심이 치중되어 있던 시기에 노동운동가로서 자신의 그 한 몸을 불사른 사람.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위인’. 그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음악극 <태일>도 그 정의를 지적하지 않는다. 감히 누가 그를 부정할까. 다만, 음악극 <태일>은 위인, 열사 전태일이 아닌 인간 전태일의 삶을 조명한다. 그의 성장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내며, 비극적 생애를 강조하는 대신 그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었는지를 담백하게 전달한다. 음악극 <태일>의 각본을 쓴 장우성 작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여러분, 이런 삶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사실 저는 절대로 태일이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조금은 그런 용기를 내보고 싶어요.”라고 조금은 담담하고 조곤조곤한 어조로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것이 태일을 무대에 올리며 목표한 것이라고.

이러한 점에서 나에게도 음악극 <태일>은,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평범한 태일의 삶과 갈등, 투쟁을 보여줌으로써, 무심코 그를 열사이자 위인으로, 일종의 철인처럼 인식하고 있던 나의 시선을 반성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눈앞의 사람을 온전히 ‘태일’로 바라볼 수 있는 소극장 무대라는 환경이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마음의 거리도 좁혀 주었다. 그래서인지 비극적 결말이 예정된 인물이 평범한 일상 속의 순간을 즐기며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더욱 마음에 짙게 남았다. 그리고 그가 제 앞에 주어진 참혹한 현실과 변하지 않는 기득권에게 분노하며 ‘나라도 가야만 한다.’ 결심하는 순간에서, 조금 솔직하게, 내 마음의 소리는 태일에게 외치고 있었다. 가지 말라고. 그가 가기로 결심한 이유를 눈으로 보면서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운 투쟁을 벌이던 그가 맨몸으로 저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안이었음을 인지하면서도, 나는 그를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기에, 극이 끝난 후에도 끝까지 극을 보고 나온 후 오래도록 고민했던 것 같다. 지금 이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태일’을 향한 일시적인 연민으로 멈추는 것이 아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수많은 또 다른 ‘평화시장’들, 부조리와 고달픈 투쟁에 대한 연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다양한 노동 외의 투쟁들이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음악극 <태일>이 아직 시의적인 극인 것처럼, 극 속의 태일이 던지는 “나는 기억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기꺼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연대가 보다 강화되길 바란다. 최근, 우리는 ‘함께’와 ‘연대’가 주는 거대한 힘과 성과를 체험한 적이 있지 않은가.

사실 사회문제와 연대에 대해서, 나는 2024년 겨울 전까지의 나는 줄곧 시선을 돌려 왔던 것 같다. 불편한 것들을 눈앞에서 잠시 멀리하면서, 저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곤 했다. 그저 나서서 행동하는 이들을 비난하지 않는 데에서, 그들이 평온한 제 일상을 방해한다며 불멘소리는 타인에게서 저들을 두둔하는 데에서 그쳤을 뿐이다. 종종 정부와 공권력의 무능과 병폐를 지적하고, 나 자신을 나름의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라고 자위하면서, 그저 방관자의 위치에서 있었다.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 그 수많은 부조리를 목격하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저 혼자 중얼거리거나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만 할 뿐이었다. 나는 어쩌면 저 뜨거운 저항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행동하는 것은 저기 저 특별한, 타오르는 이들에

게 맡겨 두자며(부조리에 맞서 투쟁하는 이들이 특별히 더 정의롭고 대단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렇게 평범을 방패로 하여 현실의 연대에서 무심코 선을 긋고 물러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 동덕여대 강제 공학 전환, 그리고 기타 정부와 그 비선에 대한 비리와 부조리의 해명과 사죄 등을 외친 수많은 투쟁을 흘러보냈다.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면서도, 저 사이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섭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렇게 내가 겁쟁이처럼 외면한 대표적인 투쟁이 바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이동권 시위였다. 대학로의 공연을 좋아하는 나는 매주 몇 번씩 혜화에 방문하는 편인데도, 문우에서 관련 이야기를 다루기 전까지는 전장연 시위가 혜화역과 마로니에 공원에서 자주 열린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서울 교통공사의 잔인한 진압에 분노하면서도, 부끄럽게도 그 일이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처지도, 그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처지도 아니었기에 그 일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더 말을 얹지 않고 싶었다.

추측하건대, 아마 나와 같은 어중간한 입장을 공유하는, 소위 ‘평범한’ 이들도 분명 적지 않게 존재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도 그런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회의 시의적인 의제에 대해 나름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들과 함께 부조리한 공권력과 기득권 따위에 저항하고 투쟁하기엔 용기가 없는 이들. 자신이 그 부조리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한 걸음 뒤에서 소심한 분노를 토해내기만 하는 그런 이들. 혹은 마음만큼은 연대하고 싶지만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만 같아 겁을 내고 여전히 지켜보기만 하는 이들. 그렇게 내 일은 아니라는 가장 커다란 변명 뒤에 숨어있던 이들을 —, 우리를 연대의 광장으로 이끈 것은 바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당사자성이었다.

계엄이 포고되던 날 밤을 아직 생생히 기억한다. 아마 많은 국민이 아직 그 밤을 잊지 못했을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경. 혜화역에서 국제캠퍼스로 돌아가던 그 4호선의 지하철 안에서 모두가 똑같은 뉴스 화면을 마주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영상. 언제 찍었는지 정확한 시간조차 알 수 없는 기계적인 영상 안에서(물론 보도는 실시간으로 나왔지만) 들리는 단어들의 조합은 순간적으로 내가 과거를 살고 있나 의심스러운 정도로 책이나 영화에서만 보았던 비현실적인 단어들의 연속이었다. 북한 공산 세력, 중북 반국가 세력, 그리고 비상계엄. 기속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4호선 선바위역에서 인천행 버스로 환승해야 했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에선 축축한 눈이 내렸다. 손이 시렸지만, 끊임없이 실시간 뉴스가 재생되는 유튜브 화면에서 눈을 떼 수가 없었다. 무서웠다. 헬기 소리가 들린다는 말들, 국회로 군인들이 진입하고 있다는 보도, 사망에서 들려오는 계엄, 계엄, 계엄.

이날 역사를 바꾼 것은 곧장 국회로 달려가 몸으로 군대를 가로막은 시민들이었다.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로 달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한 어느 시민의 인터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또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로 모여달라는 라이브 방송도. 긴급한 순간에도 누군가는 불의를 막고자 몸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행동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나는 뒤로 물러나 겁에 질릴 수 있었다. 초조히 상황을 지켜보고 계엄이 해소되는 순간, 안심할 수 있었다. 그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뛰쳐나간 이들이 전혀 특별한 무언가를 지닌 이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동료 시민일 뿐이었다는 것을, 그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차차 눈에 들어왔다. 행동하는 이들에 대한 마음속 거리감이 한 발짝 크게 좁혀진 순간이었다.

그 후 광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행동만큼이나 중요한 연대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일이 생겼다. 바로 ‘남태령 대책’이다. 음악극 <태일>에서도 나타났듯이, 행동하는 이들을 좌절시키는 것은 기득권의 탄압,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득권의 탄압 속에서도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연대는 거대한 힘과 의미를 지니게 되며, 그렇게 마음이 모여 기득권에 맞선 민중의 승리를 이끌어 낸다. 이를 보여준 것이 전봉준 투쟁단의 트럭터 대행진과 남태령의 밤이었다. 집회 및 시위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임에도, 트럭터를 이끌고 상경한 전봉준 투쟁단에게 서울시는 교통 통제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실어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였다. 이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시민들은 서울시의 이러한 불의와 부조리에 저항하며 늦은 밤 한달음에 남태령 행렬에 합류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은 물자를 보내거나 전화로 항의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뜻을 함께하며 연대하였다. 이튿날 경찰의 차벽이 풀리고, 끝내 남태령 고개를 트랙터가 넘어선 순간. 춤고 배고팠던 시간 속에서 온기를 나누고 역무원의 작은 다정이 더 커다란 위로로 연대로 다가왔던 순간. 그 순간들 속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저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힘이 되는 일인지 남태령의 밤을 지켜보며 알게 되었다. 당장 달려 나가 현장에서 저들과 합류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마음을 보태는 것도 분명한 연대이며, 그렇게 쌓인 목소리와 마음이 모여 세상을 조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무엇보다 그날 남태령으로 달려간 이들이, 자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 외치던 당당한 시민들이 그 순간만큼은 성별, 나이, 직업이나 신분, 정체성에 따라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그저 동료 연대자로서 그 공간에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에서 연대의 순간, 개인이 외치는 각자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고, 동시에 각자의 의미를 담아 거대한 강과 같은 흐름을 만들어 낸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으로 달려온 이유에 대해 서로가 귀를 기울여주며, 차벽으로 그들을 가로막은 저 공권력의 탄압에 함께 맞서며, 다양한 소리가 공명을 이루어 더 큰 파동으로 퍼져 나가는 모습 말이다. 계엄이 선포되던 날, 그저 퇴근 후 저녁 시간을 누리고 있던 평범한 시민들이 국회의 문을 맨 몸으로 가로막았다는 것. 남태령으로 향한 시민들이 함께 모여 온기를 나누고 부조리한 공권력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내 옆에 있는 이가 누구여도 괜찮았다고 느낀 것.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때때로 함께 외치며 그저 다 함께, 따로 또 같이, 동지라는 이름으로 묶여 투쟁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상적으로 써 왔던 평범한 소시민이라는 단어가 연대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동지’가 된 이상, 연대는 더 큰 연대로 확장된다는 것을 이후의 수많은 광장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

내란 수괴의 탄핵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이루어진 후에도, 광장에서 함께 외치며 형성된 그 라포(rapport)가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는 않았다. ‘함께 투쟁했던 동지’라는 유대 아래, 훨씬 많고 다양한 이들의 관심이 사회 각 의제로 쏟아져 내렸다. 탄핵 선고 전, 광화문 집회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남태령 대첩의 감사를 표하며 무지개떡 1만 개를 돌린 일이 있었다. 왜 하필 무지개떡이었을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은 없지만, 많은 이들이 그 무지개떡을 보고 성소수자를 떠올린 것에서 연대의 확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성과 무관하게, 마냥 멀게만 느껴졌던 타인의 말을 새삼 귀 기울여 듣게 된 후 느낄 수 있었던 공감과 이해 그리고 뜨겁게 달아오른 광장의 열기가 전도되어 함께 타오르는 수많은 의제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대의 기회 말이다. 광장의 열기가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저 이 경험을 통해 사회적 의제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몇 초라도 더 머무르는 것, 그 정도의 변화와 발전은 우리가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흐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니 테고 말이다.

나 역시 그렇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탄핵 집회 이후 사회적 의제에 대한 연대의 시선이 많이 늘어났음을 종종 실감하곤 한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SNS 등지에서 발견하는 예상치 못한 친구들의 노동운동 서명 요청이나, 퀴어페스티벌 참가 게시글과 같은 것들 말이다. 특히 이번 퀴어페스티벌의 경우, 역대 최대 인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광장에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외침을 들었다. 그 질은 유대의 기억으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관심을 가지며 커다란 연대에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일견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시선이 한데 모였을 때, 우리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더 나은 세상을 정의할 때, 누군가가 스스로를 불사르지 않아도 마음속 불꽃이 하나, 둘씩 타오르지 않을까. 일상이 회복되고 사회가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그저 특정 시점으로 그저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를 맞고 굳어진 단단한 땅처럼 더 안정적으로 디딜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광장의 기억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연대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했으나 거창한 결론은 끝까지 내리지 못했다. 당장 나조차도 지금 제대로 된 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부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광장에서 만난 이들을 보고 새로이 배우고 함께하고자 마음 먹은 이들이 있다. ‘태일’은, 광장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함께 했던 그 시간의 기억은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지난 투쟁의 이들을 동지로, 먼저 앞서나간 선배로 기억하자고 말한다. 그렇게 한 발 짝씩 거리를 좁혀 나간다. 내밀고 있는 동지의 손을 맞잡기 위해. 연대가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달려나가는 그 등을 지켜보고 박수를, 응원을, 지지를 보내고 싶기에 말이다.

참고자료

- 아떼오드, 「음악극 태일」 프로그램 북, 아떼오드, 2025
- 강광석, 「28시간의 남태령」, 시민연론 민들레, 2024.12.25.
- 김세희, 「탄핵 시위에 왜 이렇게 무지개 깃발이 많냐구요?」, 오마이뉴스, 2025.01.30.

입들막의 역학 - 캔슬 컬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수습편집위원 **에멜무지로**



여는 말

현대 사회에서 캔슬 컬처(Cancel culture)는 더 이상 단순히 취소나 배제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역학이 작동하는 복잡한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캔슬 컬처에서는 ‘도덕적 정의’,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이 등장하지만, 사실 이를 통해 캔슬 컬처 수행자는 ‘권력 관계 재편’, ‘집단 정체성 수호’ 등의 이권을 수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캔슬 컬처를 비평함에 있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충돌에 대한 이익형량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다만, 캔슬 컬처에 대한 분석이 이익형량과 주장에 대한 비평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의 주장을 ‘왜 공론장에서 지워버리려 하는지’, 그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과 사회적 이해관계 또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캔슬 컬처에 대해 한영인 문학평론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캔슬 컬처는 국가권력이 명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자율적인 시민사회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현상이다. 시민불복종 운동이나 반정부 활동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맞선다면 ‘캔슬 컬처’는 **정치적/윤리적/문화적/역사적/풍속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창작물이나 창작자 개인을 겨냥한다.** 여기서 ‘캔슬’은 미리 잡아 둔 식당 예약 같은 걸

‘취소’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창작물이나 창작자의 흔적을 깨끗이 제거하고 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띤다.”

따라서 이 글은 캔슬 컬처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확산되고 정당화되며, 그 과정에서 어떤 논리구조 및 방법론이 동원되는지에 주목하려 한다. 각각의 집단이 어떻게 ‘캔슬’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 공론장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각각의 이해와 목적을 가지고 서로의 목소리를 지우려고 하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캔슬 컬처가 침묵시키려는 타인의 자유와 존엄이 무엇인지 조금 더 다가서려고 한다. 소수자와 비주류의 존엄을 침해하고, 공론장을 권력자와 다수자의 잣대로 획일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캔슬 컬처는 얹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허구에 기반한 캔슬 컬처, 인지부조화, 프레이밍 등 캔슬 컬처를 위시한 주장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캔슬 컬처가 발현하게 된 복합적 배경과 비선형적인 요소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텍스트마닝과 카오스 이론 등의 방법론은 집단 행동의 양태와 예측불가능한 사회적 행동의 궤적을 가시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금기와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캔슬 컬처가 되는가? - 도서관 민원폭탄과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

법학의 영역에서 고의와 과실은 구분된다. 고의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도하고 용인한 경우다. 하지만 과실은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회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경우이다. 고의와 과실 모두 특정 행위로 인한 결과는 존재하지만, 그것에 의도가 담겨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된다. 그래서 형법은 과실범보다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기와 불문율은 고의일까 과실일까? 금기는 공동체 내에서 절대로 여겨지는 안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규범이며, 불문율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지키려고 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공동체 구성원이 금기와 불문율을 알고 있다’는 전제를 공유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행위자의 단순한 부주의라기보다는, 규범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려는 ‘고의’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 이렇게 불문율과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금기에 의문을 제기한 행위자를 공동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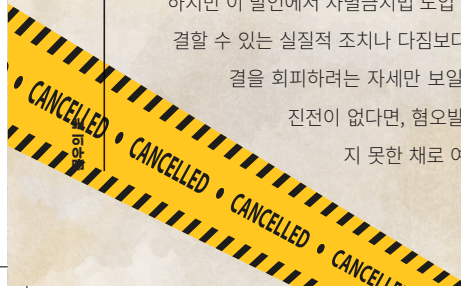
집단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가 곧 캔슬 컬처의 중요한 역학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금기와 불문율에 기반한 캔슬 컬처는 대놓고 수면 위에서 벌어지는 취소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 아래에서 금기와 불문율을 통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최근 몇년간 전국 공공도서관에 이어지고 있는 특정 학부모단체와 종교단체의 민원 릴레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성적 내용’을 담고 있거나 ‘동성애 코드’를 포함한 도서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국 공공도서관에 해당 도서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해당 도서를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들로부터 유해 출판물을 보호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과 종교적 가치관을 공동체의 불문율로 강제하려는 ‘고의’가 숨어있다. 반복적인 민원과 집단적 압박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서가에서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선정한 ‘유해 도서’를 빼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출판물에 대한 검열’의 새 지평을 여는 신박한 시도이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폭탄은 공무원들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도서관의 다양성을 억압하며 이용자의 읽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캔슬 컬처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와 금기가 어떻게 캔슬 컬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김민석 총리는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본인의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또는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해서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해당 입법으로) 자신이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두 가지 목소리가 상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이익형량이 실현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한 것인데, 얼핏 보기에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띄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발언에서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의 진전 의지를 살펴볼 수는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나 다짐보다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 아래 문제해결을 회피하려는 자세만 보일 뿐이다. 혐오발언과 차별을 막으려는 실질적 진전이 없다면, 혐오발언들이 가진 캔슬 컬처의 요소를 전혀 억누르지 못한 채로 여전히 수많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캔슬 상



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모호성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입법기관에서의 논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더군다나 이 발언의 주체는 다른 아닌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자이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지언정 국무총리의 발언은 분명 아득한 높이의 기득권에서 발화되어 아래로 흘러 내려올 수밖에 없는 무거운 발언이다.

김민석 총리의 발언이 더욱 개탄스러운 이유는 김민석 총리가 주장한 ‘차별받는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허구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안에서, ‘차별적 발언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은 없다.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미처 규정하지 못하는 차별을 당했을 때, 그 피해를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수동적인 법률안에 가깝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는 새로운 금기와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기존의 금기와 불문율로부터 차별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주장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주장 자체에 이미 다른 인격체의 자유권을 말살하려는 방향성이 잔뜩 담겨있는데, 해당 주장을 하는 사람의 자유만 존중되어야 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자유는 틀린 것이니까 가르치려 들고 억압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들의 주장처럼 성소수자들이 다른 이에게 동성애를 강요할 수는 없듯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성소수자에게 동성애를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 방향—소수자와 다수자 모두—를 품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안은 차별을 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조차 존재하지 않는데, 반-차별금지법론자들은 사회적 합의와 자유권 침해를 명분으로 허수아비 때리기까지 행하고 있지 않은가.

김민석 총리는 과거에 이렇게 말했다. “인류가 동성애만 하면 지속 불가능”해진다. 개인의 행복이 진정 번식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가치인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번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존재인가? 번식과 재생산이 현대 한국사회에서 ‘누구나 지켜야만 하는’ 불문율의 지위를 잃었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처절한 출산율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창이 아니라 방패에 가깝다. 무의식 속에 담겨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차별을 억제하고, 차별당한 이들을 구제하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즐기게 반대하는 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논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 즉 ‘창을 들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자유권의 억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성별/인종/국적/출신지역 등을 바탕으로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하는 말은 자유에 근거해 존중받아야 하고 ‘상대’가 하는 말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중성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캔슬 컬처와 인지부조화 - 대선 3차 토론

나와 다른 주장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때로는 인지구조의 왜곡이 필요하기도 하다. 없는 사실을 있다고 판단하거나, 그 반대를 행함으로써 억지스러운 캔슬 컬처를 유도하는 것이다. 긴 말 할 필요없이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21대 대선 3차 TV토론 당시 이준석 후보는 문제가 된 ‘젓가락 발언’ 이후, 진보 진영의 위선을 비판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동원했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권영국 후보는 분명 발언이 끝나기 전에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사례가 ‘민주노동당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부정했으며, 따라서 권영국 후보의 발언에서 위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언어/비언어적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 영상의 유튜브 댓글에서는 ‘이재명의 눈치를 봤다’, ‘좌파의 위선이 드러났다’ 등의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토론을 시청한 사람의 입장에는 다소 의아한 반응이었다. 토론을 보는 ‘나’의 입장에서는—1. 저 발언이 이재명 자녀가 온라인에서 했던 발언인지 몰랐으며 2. 권영국 후보가 해당 발언의 맥락을 모두 알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했는데, 온라인 댓글은 이미 ‘회피=위선’이라고 결론내리고 맹폭하는 단계로 접어들어 있었다.

권영국 후보의 대답과, 토론 이후 사후 대처는 분명 이준석 후보가 원한 것처럼 ‘위선적 행태’로 정의 내리기에 다소 취약한 정황 근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답을 권영국 후보가 직접 언급 했었다는 점에서, 위선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의 토론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댓글창은 권영국 후보를 위선적 인간으로 결론내렸을까. 일단, 댓글창과 토론 전문 사이에서 실제로 어떠한 간극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론으로 ‘대선 3차토론에서 이슈에 따라 지지자들의 인지부조화가 확인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대선 3차토론에서 ‘젓가락’ 발언을 담은 언론사의 유튜브 영상과, ‘법인카드’ 발언을 담은 언론사의 유튜브 영상에서 각 후보들의 멘트를 텍스트로 따온다. (해당 영상은 ‘이재명 이준석 젓가락’, ‘이재명 이준석 법인카드’ 두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가장 상위에 노출되며 조회수가 가장 높은 두 영상을 선정한 것이다. 각각의 댓글 수는 17000개 이상을 확보하여, 최대한 많은 양의 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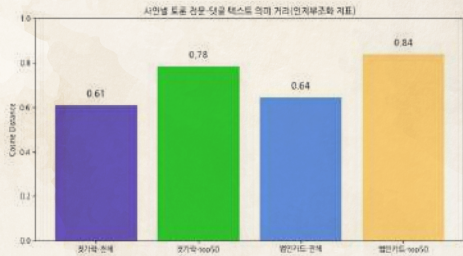
그리고 각각의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긁어와서, TF-IDF 기법을 통해 영상에서 추출한 텍스트와, 댓글 텍스트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한다. 이 기법은 서로 다른 두 텍스트 문치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 의미 집합의 중첩도를 수치화해서 두 텍스트 문치의 유사도를 직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양적 접근법이다. 가령, ‘법인카드’를 후보들이 이야기했고, 댓글에서도 ‘법인카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면, 두 텍스트 문치의 코사인 유사도는 가깝게 산출될 것이다. 반면, ‘법인카드’를 언급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다른 정치적 이야기거리, 혹은 다른 정치적 프레임이 더 많이 언급된다면, 영상과 댓글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가 크게 측정될 것이며, 따라서 댓글이 해당 영상이 가진 정치적 논쟁보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댓글들이 많은 집단적 인지부조화 상태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JTBC, 조회수 141만, 댓글 수 17668개



채널A, 조회수 225만, 댓글 수 19553개



두 영상에서, 전체 댓글과 토론 전문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 자주 노출되는 상위 50개 댓글과 토론 전문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해 결과는 위 그래프와 같다. 흥미로운 것은 두 영상 모두에서 상위 50개 댓글과 토론 전문 사이의 거리가 전체 댓글과 토론 전문 사이의 거리보다 크게 측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자주 노출되는 댓글에 의해 인지부조화는 재생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둘째,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은 의도적으로 인지부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 고관여층에 의해 작성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댓글창에서의 논쟁은 토론에서의 논쟁과 그 내용 면에서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이는 토론 영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논의를 피하는 인지부조화로부터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토론 영상이 시사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사실에 대한 논의보다는 상대 진영 후보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캔슬 걸치가 댓글창에서 벌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객관적 토론 맥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불일치할 때, 이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함을 실제 정보를 왜곡하거나 선입견에 부합하는 방향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왜곡을 기반으로 쓰여진 댓글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주장을 더욱 공고화하고, 다른 정치인의 논리적 정합성을 약화시키려는 온라인 공론장 캔슬 컬처로 작동한다 볼 수 있다. 또한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론장의 다양성을 뭉개버린다. 이런 인지부조화에 의한 캔슬 컬처는 캔슬을 시도한 사람의 논리적 정합성을 담보하지도 않고, 감정적 표현에 기댄 조롱과 비생산적 논의로 이어짐으로써 공론장의 황폐화를 가속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다만 이러한 코사인 유사도 분석만으로 ‘인지부조화’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사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지부조화 외에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은 댓글과 토론 내용 사이의 ‘괴리’를 수치적으로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괴리 현상이 온라인 공론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해석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괴리 자체가 공론장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임과 캔슬 컬처 - 이대남 극우론

이대남 극우론은 목적론적 오류에 기반한 캔슬 컬처의 전형적 예시다. 엘리트 이대남/저학력 이대남의 박리, 언어적 과격화, 오프라인 행동(서부지법 폭동 등), 기타 혐오 논란은 그저 ‘극우=이대남’의 프레임으로 결론내릴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다. 엘리트 이대남의 정치적 과대대표, 메시지의 미디어 중심 이동, 그리고 비수도권 기반 이대남의 실질적 기회 박탈과 불만, 지역/계층마다 완전히 분리된 이해관계. 이 모든 층위를 무시하고 단순히 이대남을 ‘극우화’라고 포장해버리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다른 캔슬 컬처이자 카오스의 증폭이다.

박권일 사회학자는 “극우화는 주로 **엘리트들이 주도한 “위로부터의 퇴행”(박선경, ‘한국 정치 엘리트와 민주주의 퇴행’)이긴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혐오·차별적 ‘밈’을 폭발적으로 생산·소비하는 주체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퇴행’**도 분명히 존재한다. 한국의 극우화는 그렇게 위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퇴행이 동시발현하고 상호작용한 결과” 라고 밝히며, 극우화의 복잡한 서사를 단순화하는 것이 어려움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사회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 극우의 실체는 어떨까. 연세대학교 복지국가 연구센터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협력한 “수면 위로 떠오른 극우 - 한국 사회 극우의 현주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극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0.2%인데, 극우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21%에 달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극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체제의 기득권층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권위적 리더십과 급진적인 수단을 통해 기존 질서를 재편하려는 정치적 정서를 의미하며, 이들은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서도 외국인과 같은 외부 집단에 대해 배타적이다. 또한, 불평등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고 자연스럽다고 여기며, 약육강식 사고에 익숙하다. 동시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도 중시한다. 한국의 맥락에서는 반공주의도 중요한 속성이 된다.”

이런 기준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남성 중 24%, 여성 중 19%가 극우 성향을 띠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층이 29%, 20대 청년층에서 28%가 극우로 분류됨으로써 극우성향은 청년과 고령층에 집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 비해 1.5배 이상 극우 비중이 높으며(20대 남성의 33%, 20대 여성의

22%), 30대도 극우 남성이 극우 여성에 비해 2배 많은 비율을 차지함이 확인되었다(30대 남성의 20%, 30대 여성의 10%). 또한 젊은 여성의 극우 성향 비율 또한 고령층 여성의 극우 성향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 결과는 단순히 ‘극우’라는 학문적 정의를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집단이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분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권위적 리더십과 불평등의 선천성, 약육강식과 외부 집단에 대한 배타성을 모두 띄고 있는 한국사회의 극우는 어느 세대, 어느 성별이든 존재하는 것인지 ‘이대남’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집단에 ‘극우’ 딱지를 붙여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극우 성향을 갖게 되는지 그 기원을 추적하는 데에 있다.

고령층이 극우적 성향을 띄게 된 이유를 추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에서 전쟁에서 비롯한 반공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의식은 다른 세대들의 그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단정적인 추론은 위험하다.) 하지만 20대 극우화의 이유는 단편적이지 않다. 몇 가지 추론은 가능하다. 커뮤니티에서의 권위주의 추종, 군대에서 경험한 선입견, SNS와 유튜브 필터버블에의 노출 등 여러 원인이 떠오르긴 한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이들이 왜 극단성을 갖게 됐는지 몇 가지 원인으로 단정해버리기엔 지금의 젊은 층이 겪은 사회적 서사가 노년층의 그것과는 너무 상이하다. 어떤 근거를 들이대든 선연적 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에 관해 조귀동 칼럼니스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부울경 2030 남성 중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6%인데, 이는 대구/경북 지역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보다도 더 낮게 집계된 것이 특이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귀동 씨는 두 가지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 지역의 극우 성향이 급증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제조업 위축에 따른 청년 취업난이다. 둘째, 청년 여성들의 대규모 수도권 이주에 따른 극단적 성비 불균형이다. 시도별 성비는 경북이 여성 100명당 남성 135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133명)과 경남(129명) 순이다. 연애-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과업에서 탈락한 젊은 남성이 이곳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또한 옛 동독 지역이 청년 여성의 유출로 인해 극단적 남초 사회가 되었는데, 이것이 급진우파가 성장하는 강력한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두 지역 사이의

사회인구적 맥락이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런 사회인구적 유사성이 극우로 이어진다고 인과관계를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배경에서 유사한 정치성향이 발현된다는 것은 이대남의 극단화가 어떠한 지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폐쇄와 기회 단절에 의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또한 동남권 청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IMF 이후 외벌이 모델이 깨지고, 2015-2016년 동남권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대우조선해양 법정관리)으로 인해 정규직 대신 사내 하청을 고용하는 것으로 인력구조가 변화하면서 ‘남성 생계 부양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음을 지적한다. 양 교수는 “청년들은 조선업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업 하청 노동을 기피하고 있다”고 밝히며, 숙련 현장 노동자의 수도권 사업장으로의 이탈, 붕괴된 산업가부장적 외벌이 체제,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하곤 전멸해버린 지방의 현실 등 동남권 청년이 마주하고 있는 끔찍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대남을 극우로 프레임하면서 벌어지는 캔슬 컬처는 되려 고학력-수도권-엘리트 청년 위주로 작동하는 청년정치 서사를 강화시키며, 정확히 계층적으로 반대에 위치해 있는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캔슬’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이후 여러 뉴스 기사에서는 ‘20대 남성이 이준석을 많이 지지했다’라는 출구조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이대남의 보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언급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목소리가 모든 젊은 남성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준석 후보가 진정 청년친화적인 후보였다고 하려면 상세 공약집에서 지역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했을 것이지만, 상세 공약집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가 대선 기간 띄웠던 어젠다들은 모든 청년을 아우른 것이라기 보다는 고학력-수도권-엘리트 남성 청년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일환이었다고 보인다. 달리 말하면, 고학력-수도권-엘리트 청년의 서사가 정치적으로 과대대표될수록, 지방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더욱 엘리트 이대남의 그림자에 숨겨진 채로 ‘캔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나긴 서사들과 복잡한 역학들을 어떻게 도식화할 수 있을까. 제일 먼

저 떠오른 것은 카오스이론을 활용한 접근법이었다. 카오스이론의 핵심은 ‘초기 조건의 아주 미세한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비정형적 파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수많은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거조차 버거운 이 사안에서, 카오스 이론은 이 문제를 ‘도식화’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맞춤형 방법론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카오스 이론은 선형성과 인과성을 최대한 배제한 채로 이대남 담론의 다변수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 V1: 경제적 요인 - 취업난, 빈부격차 등 ‘돈 벌 기회 상실’
- V2: 인구학적 요인 - 지역별/세대별 성비 불균형, 지방 여성 청년의 수도권 유출
- V3: 온라인 환경 - 익명성에 기반한 커뮤니티의 언어적 과격화, 필터버블로 인한 확증편향
- V4: 정치적 요인 -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특정 정치인에 과하게 의존해버리는 프레임
- V5: 문화적 요인 - 전통적 가치관과 가부장성의 붕괴, 젠더 의식의 변화

산업사이클로 인한 인력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이 V1 경제적 변수를 변화시키며, 이로 인해 청년 여성이 유출됨으로써 V2 인구학적 변수가 흔들린다. V3 온라인 환경 변수는 V2로 인해 발생한 파동을 증폭하며, V4를 통해 거시적 현상으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모든 변수들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변수가 변수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변수, 가령 분노와 반감에 기반한 극단성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 전반에 카오스를 불러오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식을 더 발전시켜 수치해석에 기반한 실제 모델을 구현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답은 말

점증하는 혐오와 배타성 앞에서 서서히 무기력해지는 기분을 느끼는 나날이다. 그렇다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어떻게든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다. 위선과 정치적 올바름을 지적하는 이들은 주장의 정합성보단 말하는 이의 일관성을 비판하는 것에 천착해버린다. 반면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구조를 견뎌내야만 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과도하다’, ‘언더도그마’, ‘분열을 조장한다’는 프레임 아래 손쉽게 무시된다.

캔슬 컬처의 역학은 명분의 진위, 논리적 정합성을 따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누가 발언권을 획득할 것이며, 누가 영원히 침묵해야 하는지의 문제, 즉 권력의 구조적 배

분이 논쟁의 전면에 등장한다. 그렇기에 공론장은 결코 평등할 수 없으며, 첨예한 이해 관계 속에서 ‘합의’라는 이름 아래 폭력은 은폐된다. 따라서 오늘도 누군가의 발언은 ‘캔슬’된다. “모두가 말할 수 있다”는 주장이 허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그렇기에 “누구의 목소리만 공론장에서 허용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공론장에서 어느 한 쪽을 선 혹은 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슬 컬처의 역학이 소수자와 비주류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침묵시키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캔슬 컬처에 동원되는 논리와 감정보다는 캔슬 컬처가 만들어낸 소외와 배제의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해와 포용이 아니다. 오히려 불편한 현실을 끝까지 응시하는 시선, 강요된 침묵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비대칭성이 갖고 있는 결점을 구조적으로 비판하는 힘이다.

그것이 무기력 앞에서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할 최소한의 희망이고 책임일 것이다.

참고문헌

- 한영인, “자유주의, ‘캔슬 컬처’, 윤리”, 민음사 문학잡지 리더 33호, 2021-12-07.
- 김도연, “‘산언 가부장제’의 몰락, 이대남들이 분노하는 이유 들어 봤나”, 슬로우뉴스, 2025-06-20, <https://slownews.kr/139090>
- 리차드 김, “차별금지법: 17년째 국회서 쟁쟁히... 제정되지 않는 진짜 이유”, BBC 뉴스 코리아, 2023-08-02, <https://www.bbc.com/korean/news-66065811>
- 박광연, “[단독]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경향신문, 2025-06-1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60600111>
- 박권일, “‘이대남’ 극우화보다 중요하다... 한국의 극우화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 한겨레, 2025-07-04,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6238.html>
- 이재훈, “김민석 “차별금지법... 처벌 받을까 절박한 목소리 있다”, 한겨레21, 2025-06-18,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510.html
- 이윤규, “이대남 기자가 본 ‘이대남 극우론’의 실체”, 주간조선, 2025-06-28,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dxno=42903>
- 조귀동, “연애 못하는 불만, 부울경 ‘이대남’의 윤석열 지지 토양됐다”, 한국일보, 2025-06-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509570000611>
- 최영준, 한지은, “[기획] 수면 위로 떠오른 극우 - 한국 사회 극우의 현주소”, 한국리서치, 2025-05-28, <https://hrcopinon.co.kr/archives/32972>
- JTBC News, “[현장영상] “젓가락을” 이준석 돌발 질문, 분위기 점점 싸해지더니.. #대선토론 / JTBC News”, 2025-05-27, <https://www.youtube.com/watch?v=aW9kuxElptc>
- 채널A News, “이준석, 이재명 ‘법카’ 거론하며 “집에 코끼리 키우세요?” [대선헤럴] / 채널A”, 2025-05-27, https://www.youtube.com/watch?v=dT_vS6oAJ04

무차별적인 금서 지정 요구로 고통받는 전 세계의 사서들과 연대하며 이 글을 맺습니다.

※ 주의: <서브스탠스> 등 일부 창작물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본문에 첨부된 SNS 게시물 캡처본에 비속어 및 과격한 표현, 혐오발언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 읽을 때 참고해주세요.

[]한 여성서사를 찾아서

편집위원 함함



그 여자는 '여성혐오'



@masterofblt의 트윗 (<https://x.com/masterofblt/status/19204246521003051567s=46>)

지난 5월 트위터(현 X)의 모 소위 유명 ‘페미니즘 스피커’¹⁾ 계정이 올린 트윗이다. 해당 트윗은 네이버 웹툰과 포스타입에서 연재 중인 가나바 작가의 <‘30대 백수 외톨이 일기’>에 등장하는 일부 장면을 올리며 이를 여성혐오라고 지적하였다. 일은 안 하면서 쓸데없이 사치 부리고, 노력 없이 그저 놀기만 하는, 그런 여자 백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 문제라는 이야기이다. 많은 인용²⁾이 이 트윗에 동의했다. 역겹다는 감상부터 아무리 자전적인 이야기여도 여성 혐오적일 수 있다, 와중에 몸매 부각은 왜 하나 등의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해당 트윗에 반대하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저 자신이 동의하지 않거나 보기 꺼려진다는 이유로 여성혐오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부터 작품을 보긴 했는지, 그저 개인의 자전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까지, 동의하는 의견보다 적지만 어느 정도는 존재했다.

이래저래 의견이 갈리는 걸 보고 있다 보니, 도대체 어떤 만화인가 궁금해져서 한 번 찾아봤다. 캡처가 아닌 만화의 전체 맥락은...그냥 우울증을 겪는 작가의 일상과 그에 대한 자기 비하, 자조였다. 트윗에 올려진 장면들은 자기 일상을 이야기하며 “이래서 나는 안 되나보다~”하는 식으로 자기 비하와 혐오가 이어지는 컷들이었다. 3화 정도

1 2020년대에 들어 유행한 페미니즘 계정의 한 형태이다. 페미니즘 관련 이슈를 여성들을 대표해 이야기한다는 의미로 ‘페미니즘 스피커’라는 이름을 달았으며, 온라인 상에서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주로 ‘여혐’ 사건을 제보 받거나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특정 인물의 여성혐오를 깨내어 올리는 활동을 하였다. 여성혐오와 폭력 사건을 공론화하였다는 점에서 열띤 지지를 받은 한편,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사이버 불링 유도, 개인 신상 전시, 극우커뮤니티와의 연결, 사실 확인 없이 제보 그대로 게시물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비판받기도 하였다.

2 인용 리트윗의 줄임말. 트위터(현 X)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에 바로 게시글을 덧붙일 수 있다. 인용 리트윗을 하게 되면 덧붙인 게시물 아래에 원 트윗의 미리보기가 생긴 채로 새로운 게시물이 생성된다.

를 쪽 보고 난 후, 누군가에게 불쾌하겠지만, 이 만화가 단순한 여성혐오 작품으로 라벨링 되기에 복잡한 이야기라는 감상이 들었다. 분명히 작가가 자기 삶의 일부를 녹여냈을 이 이야기가 몇 컷의 묘사로 여성혐오 작품이라는 낙인이 찍힌 게 맞는 일일까? 다소 ‘트위터 주류 감상’(주체적이고 강한, 이상적인 여성상을 페미니즘으로 추구하는 경향)에서 벗어난 한심함은 그저 여성혐오에 불과한 것인지... 내 감상이 트윗을 올린 계정과 그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닿지는 않았지만, 맥락에 분리된 묘사만 보고 여성혐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었다.

트위터 생태계에서는 이런 논쟁(이라기엔 진흙탕 싸움에 가깝지만)이 일상이다. 이것보다 더 일찍, 올해 초 아카데미에서 선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가 여우주연상에서 코랄리 파르자 감독의 <서브스텐스>를 제치고, 후보작 중에서 작품상을 받은 것으로 논란이 되었다. <서브스텐스>는 여자들이 겪는 ‘외모정병’³⁾을 보여주는 좋은 페미니즘 사회 고발 물이지만, <아노라>는 남자 감독이 여성 성노동자 소재로 만든 영화라며(이에 얽혀서 이런저런 비평과 논란이 있었지만) 아카데미와 <아노라>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웃기게도 <서브스텐스> 역시 이러한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엘리자베스 — 수가 괴물이 되어 파멸하는 원래의 결말부보다, 엘리자베스 — 수에게 모욕을 준 남자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파멸하지 않는 게 더 페미니즘적이었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매우 할 말이 많지만 참겠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성 서사 티어표’ 제작과 ‘뿡장 제보봇’으로 대표되는 2018—2020년이 있다. 나는 이 모든 시기에 항상 인터넷에 있었고, 절기처럼 반복되는 ‘뿡은 장르’, ‘여혐 작품’, ‘여성 서사’ 논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지치고 화도 났지만 동시에 이 현상이 정말 흥미로웠다.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나며 그동안 정말 많은 여성 서사와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나왔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작품들에서 ‘덜’ 페미니즘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여전히 완벽한 여성 서사를 찾고 있다. 어떤 작품은 ‘코르셋⁴⁾투성이’고, 어떤 작품은 여자가 결국 죽고, 어떤 작품은 남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묘사는 여

3 외모 + 정병(정신병)이 합쳐진 말. 자신의 외모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는 상태를 이르는 말

4 본래는 과거 여성복식에 사용된 옷을 의미하지만, 온라인 페미니즘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이 스스로를 억압, 변형, 방해하도록 사용하는 물리적/정신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성이 ‘여자답지 않다’, ‘여자가 그게 뭐냐’ 등 차별적인 발언을 피하기 위해, 혹은 특정한 외모 차림새만이 여성적인 것이라는 사회의 규범에 의해 스스로 사회적 여성성을 강화하는 것 - 화장을 하고 ‘여성스러운’ 옷을 입는 행위 -이 코르셋에 해당된다.

성 혐오적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여성 서사 작품들은 덜 여성(주의) 서사가 되거나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여성 서사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하는 건 좋다. 좋은 작품들을 새로 많이 알아가기도 하고, 내가 생각 못한 관점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 논쟁의 목적이 결국 좋은/안 좋은 여성 서사를 가려내고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여성 서사 만들기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여성 서사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여성 서사' 이슈를 되짚어보는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넓직한 여성서사는 어디에 있는가



이미지 출처 - 이세린, "여성 서사와 여성 창작자,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 - 토코쇼 '여성주의, 스토리텔링을 질문하다'", ACT1, 115호, 2019.08.14, <https://actmediact.tistory.com/1379>

알탕⁵, 준여성서사, 여성 서사, 페미니즘...

위의 표는 2018—2019년도쯤 트위터에서 만들어져 널리 퍼진 '여성 서사 티어표'이다.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드라마 등 여러 작품 중에 뽐는 작품은 거르고 여성 서사, 그중에서도 '진정한 여성 서사'를 가려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그런 믿음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성 서사에 관한 논쟁은 잊을 만하면 돌아오는 '트윗 절기'로 남아있다. 우선 여성 서사가 왜 트위터의 뜨거운 논쟁 거리가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트페미'라는 말과 함께 트위터가 온라인 페미니즘의

5 '알탕 서사'의 줄임말. 알탕 서사란 남성 캐릭터들이 주연으로 등장하고 활약하는 서사를 남성 생식기와 연관 지은 커뮤니티 용어이다. 남성이 극을 이끌어가는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반면, 여성은 그를 보조하거나 극을 위해 희생되는, 혹은 눈요깃거리처럼 등장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를 비하적으로 부르는 '알탕 서사'(혹은 알탕)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중심으로 뜨겁게 달궀진 2010년대 중후반의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2010년대의 '페미니즘 리부트' 시작 이후, 2010년대 중후반 ~ 2020년 초반 트위터를 주축으로 한 미러링⁶과 총공 운동⁷, 여성혐오/범죄 공론화(스쿨미투, 페미니즘 사상 검증, N번방 사건 등), 청원 전단지 돌리기 등 실천 행동은 트위터와 여초 커뮤니티로 대표되는 주류 온라인 페미니즘⁸을 형성한 일들이었다. 하나의 '여성' 집단에 대한 강조('보지'⁹, '여성분들/여자들이', '소녀들'이라는 지칭), 이론보다는 개인 경험의 공유, 각종 실천(탈코르셋¹⁰/4B 운동, 비혼여성 재테크¹¹ 등)에 방점을 둔 이 온라인 페미니즘은 당시 문제로 삼은 사회와 일상의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영역에도 뻗어나갔다. 온라인 페미니즘은 다른 집단에 비해 문화·예술 콘텐츠 소비 정도가 높은 편이라 일명, 오타쿠와 덕질의 성지로 불리던 트위터와 여초 커뮤니티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다. 그렇기에 문화 콘텐츠에 등장하는 여성혐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 폭력의 큰 주체 중 하나가 남성 오타쿠로 대표되는 DC 인사이드 등의 남초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의 내용은 물론, 이를 소비하는 서브컬처 문화에서의 페미니즘적 시각과 실천은 당연했다. 이런 페미니즘 실천은 남성 창작자와 그 창작물에서 여성 혐오를 지적하고 고치길 요구하는 것을 넘어, 여성에게 모욕과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리고 페미니즘적 의미를 담은 작품을 찾고 창작하는 행동으로 나아갔다.

6 한국 페미니즘 커뮤니티에서 상대의 여성혐오적인 말과 행동을 반대로 뒤집어 보여줌으로써 그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페미니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이를 많이 사용하여 화제가 되었다.

7 총공이란 '총공격'의 줄임말로, 개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온라인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총공 운동을 통해 특정 키워드나 해시태그를 실시간 트랜드에 보내기, 메일,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으로 여성 혐오적 사건에 항의하거나 공론화하는 활동을 한다.

8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페미니스트 주류는 주로 래디컬 페미니즘(급진주의 페미니즘)/퀵(래디컬 페미니스트)로 스스로를 지칭하지만, 래디컬 페미니즘의 학술적 정의와의 차이/스스로를 래디컬 페미니스트라고 정의하지 않거나, 그들을 비판하면서도 래디컬 페미니즘이라 불리는 온라인 페미니즘의 기조 따르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래디컬 페미니즘 대신 '온라인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9 래디컬 페미니즘 커뮤니티(이 글에서는 온라인 페미니즘)에서 사용하는 여성들의 호칭. '생물학적 여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기를 지칭하는 이 단어가 쓰였다.

10 탈코르셋은 2015—2016년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담론이자 운동을 뜻한다. 위에서 설명한 '코르셋'을 탈피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주로 여성의 '꾸밈노동'을 문제시하며, 통상적인 여성의 꾸밈노동과 사회적 여성성 - 화장과 긴 머리, 마른 몸 등 - 을 거부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 페미니스트들은 숏컷 혹은 삭발을 하거나, 화장품을 전부 버리는 인증샷을 인터넷에 남기기도 했다.

11 4B 운동은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를 의미하는 래디컬 페미니즘의 표어이다. 남성에 대한 보이콧을 표명하는 운동. '비혼여성 재테크'는 이의 연장선으로, 비혼 여성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 경제 공부, 주식 투자, 부동산 등을 독려한 흐름이다.

페미니즘 예술과 여성 서사 작품 공유(여성 아티스트/페미니즘 작품을 추천하는 해시태그 및 후기)는 물론 글/그림 창작(‘디폴트 여캐’¹² 창작부터 에세이와 웹 만화까지)이 줄을 지었다. 공유, 창작과 함께 주를 이룬 것은 바로 비평이었다. 이는 기존 작품 속 여성 혐오적 요소를 찾아 비판하고, 그와 다른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작품들을 찾아 좋은 부분을 찾아 읽어내는 작업이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여성 서사는 단순한 남성 서사의 반전, 가끔 찾아서 즐기는 독특한 무언가의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의 온전한 이야기이자 좋은 작품이라 평가받는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여성 서사에 대한 주목은 온라인 페미니즘의 결과인 동시에 중요한 페미니즘적 실천이었다. 페미니스트라면 남성 제작자의 여성 혐오적인 작품, ‘알탕 서사’에서 벗어나 여성이 만든 여성 서사를 ‘소비’하는 게 당연해졌다. 이렇게 온라인 페미니즘 실천에 있어, ‘여성 서사 = 페미니즘’이라는 하나의 공식이 성립하였다.

이런 여성 서사 붐은 전통적 여성상에서 벗어난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 남성과의 로맨스와 현모양처를 넘어선 여성들의 복잡한 욕망을 보여주었다. 여성이 불편함과 모욕을 느끼지 않아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이야기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여성혐오와 폭력에 지친 여성들에게 카타르시스와 즐거움을 주었고, 페미니즘의 동력이 되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성 서사 붐을 통해 문화-예술 영역에서 진정한 페미니즘을 향한 돌파구를 찾아낸 것만 같다. 하지만 2010년대 중후반에 불어온 여성/페미니즘 서사 열풍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2010년대의 온라인 페미니즘은 트위터 타임라인, 여초 카페 등 인터넷 공간을 여성이 폭력이나 반페미니즘적 비난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기능하기도 했다. 그에 따라 많은 온라인의 페미니스트들이 이 공간을 바깥세상과는 다른 안전한 곳으로 유지하려 했었고, 그 유지 전략 중 하나가 구분 짓기였다.¹³ 한창 여성 서사에 관한 열띤 논쟁이 일어나던 2010년대 후반, 온라인 페미니즘은 단순히 ‘남성’을 배제하는 것 넘어 ‘진짜 여성’ 혹은 페미니스트를 구분하려고 시도했다: 1) 기준 세우기 — ‘바람직한’ 페미니스트의 기준 세우고, 페미니스트라면 반드시 그 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4B — 비섹스, 비연애, 비혼, 비출산 —의 실천과 탈코르셋이 있다.) 2) 그리고 페미니스트가 아니거나, 앞에서 말한 바람직한 페미니스트의 기준에 도달

12 래디컬 페미니즘에서 코르셋에서 벗어난 여성상을 의미하는 단어. ‘디폴트’ 여성상이 있으며, 사회가 생각하는 여성상은 그 디폴트 여성에 코르셋을 씌운 것이라고 본다.

13 허윤,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 한겨레출판, 2024, 135—136.

하지 못한 여성은 ‘홍자’, ‘명에 한남’, ‘남미새’¹⁴라고 지칭했고, 3) 세력 나누기 — 바람직한 기준을 따르는 페미니즘을 ‘래디컬’로, 그와는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페미니즘은 ‘쓰까’, ‘리버럴’¹⁵ 등으로 부르며 세력을 나누었다. 페미니즘에서 일정한 도식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여성 서사를 소비하는 관행도 이런 기조를 따랐다. 여성 서사를 소비하는 것이 홍자/남미새와 페미를 가르는 구분이 되었고, 바람직한 페미니스트의 기준에 따라 어떤 작품은 훌륭한 여성 서사 작품으로, 어떤 작품은 ‘부족한 여성 서사’나 여성 서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성 서사에 관한 도식화가 일어난 것이다. 글의 초반부에 등장한 ‘여성 서사 티어표’가 여성 서사의 기준이 도식화된 결과이다. 트위터는 단문 메시지로 이루어지는 분산적인 소통을 특징으로 하므로,¹⁶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성 서사를 둘러싼 다양한 의미가 단순화되기 쉽다. 또한 당시 온라인 페미니즘이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여성 서사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실천(여기서는 여성 서사의 소비)과 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흐름이 생겨났는데, 이는 더욱 즉각적인 여성 서사 기준의 도식화를 끌어냈다. (이 도식화된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여성 서사에 대한 도식은 여성 서사 작품에 접근하는 것을 더 손쉽게 만들어 준 동시에, 어두운 측면도 있었다. 일례로 2010년대 중후반에는 ‘뺨은’¹⁷ 장르 제보봇’, ‘여혐 00 제보봇’ 등의 계정에서 알 수 있듯 여성혐오 없이 ‘클린한’ 작품을 찾고 ‘뺨은’ 작품을 걸러내는 문화가 생겨났다. 기존 작품의 여성혐오에 대한 비판과 여성 서사 작품에 대한 비평이, 특정 계정에 어떤 작품이 ‘뺨’았고 어떤 작품이 ‘클린’하고 바람직한 여성 서사인지 제보하고, 그 특정 계정은 이를 알리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문제시되는 여성 혐오적 요소가 담긴 작품이나 좋은 여성 서사 작품이 소개되기

14 세 단어 모두 페미니즘에 반하며, 안티 페미니즘 세력 - 주로 남성을 옹호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이다. 홍자는 ‘홍내차지’의 줄임말, 남미새는 ‘남자에 미친 새끼’의 줄임말이다. 단순히 안티 페미니즘 성향의 여성 혹은 ‘남자에 미친’ 여성에 대한 비난을 넘어, 주류 페미니즘 기조에 반대하거나 남성과 긴밀하게 엮이는, 혹은 헤게모닉 여성에 대한 비난으로 쓰이기도 한다.

15 쓰까는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을 낮잡아 부르는 단어로, 교차성 이론에 입각하여 ‘여성’ 외에 퀴어, 장애, 환경, 난민 등 ‘다른 인권 의제’를 페미니즘적으로 엮는 운동을, 여성인권에 다른 것을 ‘씌는다’는 의미에서 ‘쓰까’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었다. 현재는 ‘래디컬’과 대비되는 ‘리버럴’로 대체되어 쓰이는데, 여기서 리버럴은 제1물결 페미니즘을 의미하는 게 아닌 래디컬 페미니즘과 다른 노선을 가진 페미니즘을 지칭하는 말이다.

16 허상희,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트위터(Twitter)의 특징과 소통 구조에 관한 고찰』, 『우리말연구』, 28호, 2011, 274 — 277.

17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거나 비윤리적인 언행을 지적하는 데 쓰이는 속어. 특정 작품이 뺨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 감수성이 낮거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묘사, 표현이 작품 속에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진짜 미치겠음 불한당 범죄와의전쟁 신세계 더킹 이런 영화들이 여자를 무슨 개념으로 여기는데 그게 좋다고 쳐보고 억압하면서 잘 만든 여성 주연 영화는 안 보는 여자들? 개돼지 맛음. 여자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현혹 중 하나임.

2023. 2. 11.
눈이 제일 슬직하다... 소비로 증명 여학구는 왜 연날 남자가 는 말고 여자소비자 무시하는 사황에 눈 슬데만 할끼.. 빈대의 경우에 필요한건다. 스크린 속 남자에게만 자갑 열면서 여자 나오는 컨텐츠는 다 뺄았고 재미가 없어서 돈을 못 쓴다하면... 눈물...

오후 10:56 · 2023. 2. 11. · 조회 1.3만회

소위 '일탈서사'를 소비하는 여자는 페미니즘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었다. 이를 여혐 백함으로 제보한 이와 그 제보를 게시한 계정은 해당 작품이 무엇을 다루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주체적 코르셋', '개랄라 코르셋', '일남' 등으로 작품의 '뺨은' 부분을 언급하기만 한다. 즉 작품을 엄밀히 비판하기보다, 특정 요소의 유무, 특정 기준 도달 여부만으로 작품이 '뺨았'는지 혹은 여성 서사인지 결정해 버린다. 이것은 작품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올해 개봉한 영화 <검은 수녀들>이 그런 문제를 겪었다. 남성 감독에 의해 자궁, 임신, 유산 등의 소재가 '구리게' 등장한다는 후기 게시물이 트위터에서 많이 공유되면서, 이 영화에 '여혐 작품'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실제 영화를 본 많은 관람객이 해당 영화의 이야기가 좋은 여성 서사이며, 여성혐오라고 언급되었던 소재에 큰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평가 내렸음에도 말이다.

잇을 만하면 꼬박꼬박 여성 서사에 관한 논쟁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 서사의 정확한 학술적 정의는 없다. 물론 여성 서사를 다루는 논문에서 '여성을 주체적이고 입체적인 인물로 그리며 여성 인물들의 다양한 면모를 그려내는 소재와 장르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것'¹⁸⁾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여성들이 주연인 것'이나 '여성 창작자가 만들어낸 것' 등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온라인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는 이런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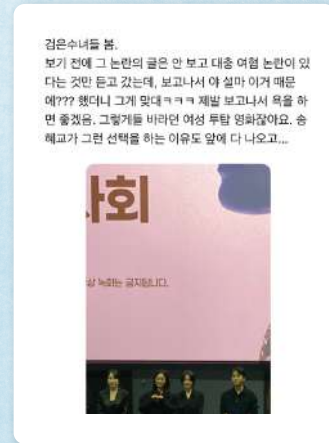
18 여성 간 연애적/성애적 관계를 주요 소재로 삼는 장르. GL(Girl's Love)로 부르기도 한다.

19 김수연, 「여성 서사와 퀴어 서사: <헤어질 결심>을 통해 본 영화(비평)의 젠더화」, 『문화과영상』, 24권 2호, 2023, 348.

도 했지만, 작품 표면에 드러난 특정 요소나 장면이 '완전한 여성 서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소위 '뺨았다면'), '뺨은 작품'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여성 서사로 라벨링되기도 했다. 백합¹⁸⁾계의 고전으로 불리며 기성 체제에 대한 반항을 소재로 삼은 작품 <소녀혁명 우테나>의 경우, '여혐 백함', '좋지 못한 여성 서사'라는 평가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다. '코르셋을 찬 인형 같은' 여성 캐릭터가 전사로 등장하고, 일본 남성



여혐 백함 제보 봇에 올라온 <소녀혁명 우테나> '인형 같은' 캐릭터 조형이 주로 여성혐오로 지목되었다



해당 트윗 말고도 <검은 수녀들>을 호평하는 트윗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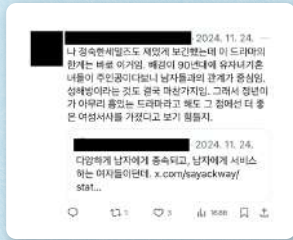
의 아래에서는 '여성 인권을 증진할 만한', '충분히' 페미니즘적이지 않은 작품도 여성 서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여성 서사가 반드시 페미니즘 서사가 아니기에 여성 서사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류 의견 대다수는 여성 서사가 꼭 페미니즘적 의미를 내포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특정 작품이 여성 서사인지를 판단하고 평가했다. 앞선 장에서 등장한 여성 서사 티어포처럼 세부적인 기준을 덧붙여 안 좋은/부족한/좋은 여성 서사를 구분하는 식으로 말이다. 바로 밑에 제시된 4가지 조건이 트위터에서 '바람직한' 여성 서사를 구성한다고 언급되는 것들이다. 타임라인의 성향(팔로우한 계정이 주로 온라인 래디컬 페미니스트 계정인지, 혹은 그냥 오타쿠인지 등)과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이 4가지 조건의 범주 안에서 작품의 '여성 서사 정도'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섹슈얼리티/로맨스 금지

여성영화의 척도가 된 백델 테스트의 기준 중 하나가 '남성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대화를 나눌 것'인 것처럼, 온라인 페미니즘의 여성 서사의 조건은 남성과의 연애적/섹슈얼적 관계가 등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티어표에 등장한 것처럼 '혐애', '혐혼'²⁰의 등장은 여성 서사 탈락이거나 아직 부족한 여성 서사로 취급되었다. 대체로 남성과의 로맨스가 지적의 대상이 되지만, (아래에 등장하는 '여혐 백합 제보 붓'처럼) 여성 간 연애적/섹슈얼적 관계가 지적받는 경우도 있다.



여혐 백합 제보 붓이 만들어진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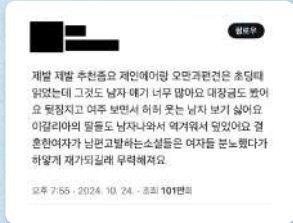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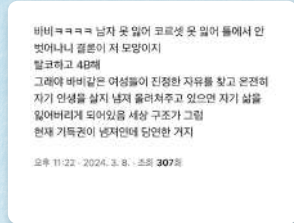


트위터에서 화제적이었던 <정년이>와 동시기에 방영된 <정속한 세일즈>에 대한 호평, 쿼어 캐릭터와 여성서사 지우기 등으로 논란이 된 <정년이>와 다른 여성 서사를 보여주어 이를 호평하고, 트위터에 많이 화제가 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는 트윗들이 꽤 있었다. 한편으로 사진8의 트윗처럼 비판하는 의견도 종종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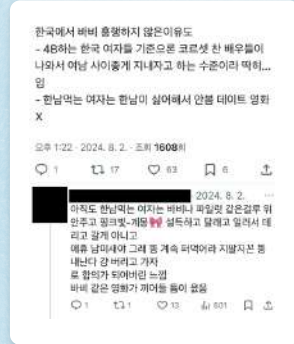
20 각각 연애와 결혼에 극도로 싫어하고 꺼린다는 뜻의 '혐애'를 풀어 연애와 결혼을 낚아서 부르는 인터넷 커뮤니티 용어

남자는 스쳐 지나갈 뿐

1번 조건과 이어지는 것으로, 여성 서사에서 남성에게 허락되는 역할은 오로지 스쳐 지나가는 조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남성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 비록 키텀링남²¹이라 할지라도, 오롯이 여성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게 여성 서사의 포인트이다.



페미니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공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남성 조연이 많이 나오는 경우, 혹은 남성과의 로맨스가 존재하면 좋지 못한 여성 서사로 평가받는다.



코르셋을 벗어라

2010년대 중후반, 탈코 운동이 온라인 페미니즘 행동주의의 중심이 되면서 창작물 속 여성의 조형과 꾸밈, 성적 물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바람직한 여성 캐릭터상으로 '탈코르셋', '디폴트', '탈성애'²² 등이 제시되었다. 다양한 체형과 모습의 여성 캐릭터들이 나오는 작품들이 주목받은 한편(웹툰 <합법해적 파르페>, <극락왕생> 등), 코르셋을 차거나 성적 대상화될 여지가 있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은 '뺑고 구린' 작품이 된다.

21 '키링'처럼 달고 다니기 좋은 과시용/전시용 남자를 의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용어. 잘생긴 외모와 상대의 말을 잘 듣는 '조신한' 성격의 남자를 이르는 것으로, '트로피녀'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22 '탈+성애'로, (주로 남성과의) 성적 관계와 남성적 시선에 의한 성적 대상화, 그 외 성애(섹슈얼리티)와 관계된 것에서 벗어나는 래디컬 페미니즘 커뮤니티의 용어. 주로 남성과 관련되어 쓰이지만, 여성 간 관계나 문화 전반에서도 탈성애가 주장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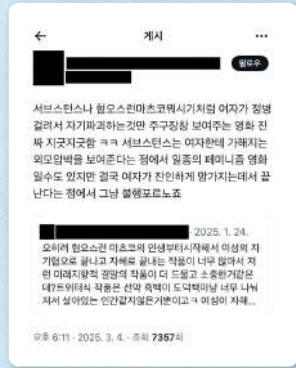
여자들이여, (몰락 아닌) 성공하라

여성서사가 진정한 여성 서사로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성이 ‘성공’하는 데 있다. 여성이 그저 불행하고 고통받는 상황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벗어나서 정상까지 성장해야 한다. (그저 불행하기만 하면, 불행 포르노²³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여기서 당연히 남자의 도움은 금물. 그런 것은 고리타분한 신데렐라 스토리에 불과하며, 반드시 주체적으로 여성이 성공해야 한다. 여기서 성공은 조건 1, 로맨스나 섹슈얼한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완전한 여성 서사’가 될 수 있다! (창작 과정에서 다른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 말이다.)

여성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성 서사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 서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여성 서사로 볼 수 있는 작품의 범위가 달라진다. 어떤 때는 ‘미소녀 동물원’²⁴도 여성 서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캡틴 마블>과 <히든 피겨스>만이 진정한 여성 서사가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온라인 페미니즘이 만든 여성 서사의 기준과 ‘완전한 여성 서사’를 찾아 페미니즘 운동의 일환으로 소비한 관행은 무엇이 여성 서사인지 빠르게 판단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작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왔다. 일종의 여과기 역할을 수행하여,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서사 작품을 탐색하는 데 쏟을 에너지와 비용을 줄이게끔 한 것이다. 하지만 앞 장에서 말한 것처럼, 맥락이 삭제된 상태에서 특정 요소에만 치중해 작품을 낙인찍어버리거나, 개별 작품의 해석보다 여성 서사 판별에 많은 에

23 캐릭터가 비현실적인 불행을 주입하거나, 불행을 부풀려서 보여주는 작품을 비하적으로 이르는 용어
24 ‘미소녀’ 캐릭터들을 대거 등장시켜, 그들의 매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남성향 작품을 비하적으로 가리키는 용어. 주로 남성 캐릭터의 개입과 그들과의 연애 관계없이, 옴니버스/에피소드 구성으로 진행되는 일상물이 이에 해당된다.



여성이 겪는 외모 강박을 바디호러로 풀어낸 <서브스틴스>는, 여성이 결국 망가지지만 할 뿐인 '불행 포르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너지를 집중시켜 버리기도 했다. 이렇게 여성 서사를 판단해 온 기준들은 깊은 논의나 성찰 없이 현재까지도 완전무결한 조건처럼 전해지고 있다.

다시금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인터넷에서 여성 서사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시작한 지 대략 10년 가까이 흘렀다. (인터넷의 수많은 페미니스트가 완벽하다고 생각한) ‘완전한 여성 서사’라는 개념도, 그를 정의하는 기준도 생겼지만, 항상 인터넷에서는 ‘여성 서사’가 어디에 있는지 애타게 찾고 있다. 여성 서사를 둘러싼 수많은 논의, 점점 더 많이 다양한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함에도 결벽적으로 ‘여성 서사’를 부르짖어야 한다면, 지금까지의 여성 서사 담론을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온라인 페미니즘을 통해 구성된 ‘완전한 여성 서사’에 관한 믿음과 그 조건, 여성 서사 판별과 소비의 모든 관행을 뜯어보자. 지난 10년을 통해 완성된 것만 같은 ‘여성 서사’ 개념이, 정말로 여성을 위한 것인가? 이 ‘완전하고 진정한 여성 서사’가 다른 모든 여성 서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이며, 여성 독자들이 현실을 이겨낼 힘을 쥐어주는가?

멋지고 당당하고 다 죽이고...아무튼 '다 함'

여성 서사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성 서사’라 하면 멋지고 당당한, 그리고 성공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캡틴 마블>, <블랙 위도우> 같은 여성 영웅이나 <미스 슬로운>처럼 성공적인 여성 권력자, 또는 <오션스8>, <버즈 오브 프레이>처럼 남성 악당을 처리하는 서사 말이다. 이런 작품들, 정말 재밌긴 하다. 경쟁에서 남자들을 전부 이기고, 못된 것들은 손 봐주고,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다. (실제로 나는 여성이 남성을 향해 복수하는 내용의 작품들을 굉장히, 굉장히 사랑한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무례하고 나쁜 자들, 남성들을 전부 물리치는 여성 이야기가 있는 한편, 그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다지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다. 인기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당당하게 잘 사는 타입은 아니다. 어떤 점에서는 찌질하고, 한심하고, 이상하다. 그런 ‘과상망측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글에서 계속 언급한 <30대 백수 외톨이 일기>, 노골적이고 문제적이었던 만화 <미지의 세계>, 해외 시트콤 <미란다>와 <데리 걸스>, 영화 <미쓰 홍당무>, <레이디버드>와 같은 이야기들 말이다. 분명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이 서사들은 ‘덜 여성주의적’인, 시대에 뒤쳐진 작품

으로 인식되거나 전자(당당하고 멋지고 아무튼 다 죽이는 여성 서사)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등장한다. 여성 서사 티어표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준 여성 서사' 작품인 것이다.

강하고 당당한 여성, 능력 좋고 멋진 여성 캐릭터가 페미니즘과 여성 서사를 대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동안 너무 많은 미디어에서 여성은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못 하는 캐릭터에 불과했다. 그저 남성에게 의해 대상화되며 서사의 주변부에 남고, 언제나 여성 캐릭터의 끝은 남성에게 달려있었다. 실제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답습하기도 했고, 반대로 미디어에서 재현된 이미지가 현실의 여성들에게 다시 투영되기도 했다. 그렇기에 현재 온라인 페미니즘이 주체적이고 당당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성 캐릭터, 그리고 그의 성공에 열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난 동시에, 여성들에게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여성'이니까.

그러나 완전한 여성 캐릭터의 등장만이 '완전한 여성 서사'이며, 그렇지 않은 여성 캐릭터의 등장을 불완전한 여성 서사, 나아가 여성혐오로 해석하는 현상을 단지 전통적인 여성 캐릭터에 대한 반항만으로 볼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적 자기 계발과 함께한 2010년대 온라인 페미니즘 기조의 산물임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와 그로 인한 여성혐오, 폭력에 거세게 분노한 온라인 페미니즘은 남성에게 비해 부족한 여성의 권력을 어떻게 획득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그 결과 중 하나가 자기 계발이다. 경제적/사회적 열위에 있는 여성이 남성과 같이 '정상'에 오르기 위한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훌륭한 여성이 되어 정상에 올라야 하며, 정상에 오른 여성이 많아지면 여성 인권도 높아진다는 게 온라인 페미니즘의 자기 계발 담론이다. 이들은 사회의 역할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성이 사회를 바꿀 권력을 얻어야 한다는 뜻에서 자기 계발을 강조했다. 구직이나 재테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부터, 소비 습관에 대한 비판(이 과정에서 '탈오타쿠'²⁵ 운동이 함께 생겼다)과 여성들이 소위 '취업 안되는' 문과나 미대가 아닌 이공계에 더 많이 가야 한다

25 과소비 조정과 성애 과몰입(쉬핑과 2차장작)을 오타쿠 문화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등장한 래디컬 페미니즘의 한 운동. 콘텐츠를 소비하더라도, '오타쿠'처럼 관련된 굿즈에 과한 돈을 쓰지 않거나 쉬핑(캐릭터들을 서로 커플로 엮는 것) 중심 2차 창작을 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는 주장, '여성적' 습관('핑크 택스'²⁶가 붙는 소비와 재테크하지 않는 것 등)을 버리고 '남성들이 하던 것'(주식과 코인 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정상'에 오르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했다. 이런 담론이 체제 순응적이고, 여성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회구조를 무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지만, 일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던가, 여성을 무력하게 만드는 '패배주의'라고 다시 반박하기도 했다. 어쨌거나 자기 계발 담론은 결국 개인의 능력, 그를 통해 사회의 차별과 구조를 극복해 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맥락에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그와 궤를 함께하는 능력주의가 결코 페미니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세대 남성보다 경제적/사회적 열위에 다수 위치한 청년 여성들에게는 효과적인 운동 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온라인 페미니즘이 비슷한 시기에 구성한 '완전한 여성 서사'의 조건에는 당연하게도 이 담론의 요소가 함께 포함되었다. 바로 강하고 당당한 여성, 능력 좋고 멋진,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의 등장이다. 주변 억압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하는 여성 캐릭터가 '완전한 여성 서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런 여성상(주체적이고 당당하며 멋지고 아무튼 다 하는 여성)은 기존 '여성'에서 벗어나 여성들에게 임파워링까지 하는 훌륭한 캐릭터이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적 의미가 충분한 '완전한 여성 서사'라면, '주체적이고 당당하며 멋지고 아무튼 다 하는' 여성 캐릭터가 필수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상, 한심하고 별로 능력도 없는, 좀 '짜치는'²⁷ 여성은 여성 인권을 옹호하지 못할 만한 캐릭터이며, 전통적인 여성상(능력 없고 수동적인, 그리고 아무것도 못 하는 여성)에 가깝기에 완전한 여성 서사에 포함될 수 없었다. (만약 포함된다고 하면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성장해야만 했다) 사회에 의해 소진되어 버린 여성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는 <30대 백수 외톨이 일기>가 그렇다. 성공하지 못한 한심한 여성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비전이 되지 못하며, 전통적인 여성상과 비슷하기에, 도리어 여성 혐오적이다. 여성에게 유독 가혹한 아름다움의 잣대로 인해 미쳐 돌아가고, 그만큼 끝까지 질주해 버리는 <서비스스투스>도 마

26 같은 상품·서비스임에도 남성용보다 여성용의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 처음에는 남성용과 비슷함에도 여성용일 때 더 비싼 컷트 비용, 의류를 비판하기 위해 쓰였지만, 점차 여성의 소비 비중이 큰 디저트·디자인 문구류 등의 가격 역시 핑크택스라고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와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27 경상도 방언으로 '뜨들리다', '궁핍하다'는 뜻이지만, 인터넷에서는 무언가 기대나 수준에 모자라고 별로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찬가지이다. 엘리자베스 - 수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외모정병'을 결국 극복하기보다 파멸했고, 심지어 자신을 시달리게 만든 이들을 향해 직접 복수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완전한 페미니즘, 바람직한 여성 서사는 되지 못한다.

성공하는 여성 서사만이 진정한 여성 서사라는 도식, 이 도식에 부합하지 않는 서사들은 여성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성공은 신자유주의적 성공 자원을 두고 겨루는 경쟁에서 이긴 개인이다. 성공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성 인권과 관련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이것만이 여성을 위한 전부라고 하는 게 과연 페미니즘인가? 성공만이 바람직하고 훌륭한 여성 서사라고 한다면, 주변부의 여자들 - 실패하고 허무하고 고통과 함께하며, 다소 한심하고 짜치는 여자들의 이야기는 그저 실패에 지나칠 뿐이고 부족한 여성 서사에 불과할까? 만약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어떤 일과 감정, 부당함의 근원을 축소하고, 삭제해 버린다. 그리고 동시에 페미니즘이란 명목으로 신자유주의 체제에 성공적인 복무자가 된다. 뛰어난 능력과 경쟁력이 있는, 바람직하고 멋진 모습의 개인은 칭송받고 중심에 서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 경쟁력 없고 한심한, 멋지지도 훌륭하지도 않은 개인은 비난받고 배제된다. 여성 인권을 위한, 완벽한 여성 서사를 위한다는 이유에서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이 '왜 그런지'에 관한 설명은 삭제된 채, 개인의 능력만이 주목받는다. 어쨌거나 너의 능력과 노력이 여성혐오와 억압으로부터 너를 해방해 줄 거라고. 그렇지 못했다면 너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하여, '여성 혐오적 여성'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어떤 여성혐오...

이어서 더 이야기해 보자. 여성의 무엇까지 다룰 수 있는 게 페미니즘일까?

: 더 나은 비전 - 당연하다. 페미니즘의 주요한 목표가 여성 인권 증진인 만큼, 여성의 더 나은 비전은 페미니즘이 자주 말하는 것이다.

여성의 훌륭함 - 너무 당연한 소리. 기존의 남성중심적 체제에서 무시당하는 여성의 훌륭함, 훌륭한 여성들을 새로 보는 게 페미니즘이다.

사회의 부당함 -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주의, 뒤집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비판부터 하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하자.

다소한심하고부끄러운, 어떻게보면부족하고이상하고아무튼좀짜치는여성의면모 - ???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테다. 페미니즘을 단 한 번이라도 접해봤다면 들어본 이야기니까. 마지막은 좀 의아하다. 여성의 부정적인 모습까지 들춰내고 비추는 게 페미니즘? 여성의 좋은 점만 말하기도 바쁘네 나쁜 부분이라니, 오히려 여성혐오 아닌가?

여성혐오(misogyny)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뜻(구글에 검색해 보았다.)은 여성에 대한 혐오, 멸시와 뿌리 깊은 편견을 의미한다. 여성 혐오'라는 용어와 수많은 여성혐오 사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여성을 미워하고, 그로 인해 여성을 모욕하며 차별하는 것이 여성혐오인 것 같다. 틀리지 않았다. 분명 여성혐오에는 이런 멸시와 폭력이 수반된다. 하지만 여성혐오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성혐오가 가진 의미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 단순히 여성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만이 여성혐오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학계에서는 여성을 남성과 같은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 객체화, 타자화"²⁸를 여성혐오라 정의했는데, 이는 여성을 향한 단순 멸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것', 즉 숭배를 포함한 대상화/타자화를 여성혐오로 정의한다. 그러니 여성을 사랑한다고 해도, 혹은 그들을 잘 대우해 준다고 해도 여성혐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앞에서 나온 것과 연결 짓자면, 여성의 '부정적인 면모'만을 강조하고, 그를 멸시하며 욕하는 건 당연히 여성혐오이지만, 또 한편 여성이 지닌 모든 부정적 면모를 지워버리고 결벽적인 여성만을 보이고 숭배하는 것 역시 여성혐오라는 것이다. 오히려 여성이 지니는 '부정적인 면모'도 인간적으로, 새롭게 이야기하는 게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다.

훌륭한 여성상을 만들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페미니즘이지만, 그것만이 페미니즘이고 여성 서사 속 '여성'이라고 하는 것, 그와 반대인 여성의 모습을 지우고 혐오로 치부하는 것은 페미니즘이라 할 수 없다.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다양한 욕망과 성격, 감정, 행동과 배경을 지워낸 채, 바람직하고 멋진 여성, 향기롭고 느낌 좋은 여성을 극찬하기만 하는 건 '인간 여성'을 축소해 버린다.

28 우예노 지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2012.



여성들이 겪는 외모 압박을 주 소재로 다룬 <서비스탄스>가 성노동자 여성의 삶을 다룬 <아노라>보다 더 '페미니즘적'인 것으로 평가 받는다. 나아가 '성노동자 여성'이라는 소재는 여성혐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라는 이미지 부연 설명을 사진 아래에 덧붙여주세요.

'완전한 여성상'이 축소한 인간 여성은, 여성혐오를 생산하기도 한다. 2024년 아카데미 시즌에 <서비스탄스>와 <아노라>를 둘러싼 일련의 논쟁이 그러하다. 당시 아카데미에서 <아노라>의 마이키 매디슨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어서 작품상까지 받게 되었다. 당시 트위터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던 <서비스탄스>가 아닌 <아노라>가 여러 상을 받자 이를 두고 <아노라>를 향한 여러 의견과 비난이 튀어나왔다. 작품의 호불호는 개인의 영역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아노라>가 받은 '의견'과 비난에는 혐오의 맥락이 포함되어 있었다. 성노동자인 아노라와 그가 겪는 '신데렐라적 일화'²⁹에 대해 '성착취를 미화한다'거나 여성이 '벗고 성적 대상화 당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풍의 코멘트와 함께, '다수' 여성이 보편적으로 겪는 외모 압박을 그려낸 <서비스탄스>가 더 페미니즘적이라는 평이 쏟아져 나왔다. 성노동자 주인공의 등장, 그가 겪는 불행이나 착취가 아닌 희로애락의 표현을 '미화'라고 일축하는 것, 그리고 마이키 매디슨이 수상한 이유가 그의 연기가 아닌 '성적 대상화'에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데에서 성노동자 혐오와 여성 혐오적 맥락이 존재했다. '더 페미니즘적'인 여성 서사를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서사를 비판하는 중에, 정상 혹은 다수 규

29 성노동자인 아노라가 부자 남성과 총동적으로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신데렐라라고 표현했지만, 영화가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범에 부합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고르고 그 이외는 탈락시키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혐오를 생산한 것이다.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도 유사한 맥락에서 평가받았다. 90년대 유자녀 기혼 여성들의 '주체적인' 성해방, 즉 남성과 관련된 성적 욕망과 남성과의 관계 — 온라인 페미니즘 규범에서 벗어나는 욕망 — 을 다루었기에 비슷한 시기에 방영한 드라마 <정년이>보다 좋은 여성 서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드라마 <정년이>가 원작 속 쿼어 캐릭터를 등장시키지 않고, 각 캐릭터에 얽힌 쿼어/여성 서사를 지운 것으로 인해 상당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말이다. 여성의 다소 '짜치는' 욕망 — 남성과의 관계, 성해방과 성적 욕망을 다룬 것이, 아무리 흠이 있어도 '짜치지 않는' 여성의 욕망 — 업계에서의 성공과 예술적 성취에 대한 욕망을 다룬 게 더 낫다는 것이다.

2010년대의 온라인 페미니즘은 탈코르셋과 '주체적 섹시'³⁰ 담론과 함께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을 향유하는 것, 섹슈얼리티와 연결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해 왔다. 강간 문화³¹에서 성적으로 개방되어 주체적으로 성을 향유하는 '쿨한' 여성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많은 남성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성적으로 착취해 왔다. 그렇기에 '주체성'이라는 이름 아래 대상화되거나 성착취 당하지 않기 위해, '성해방'이란 단어에 속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성적 대상화에 대한 경계를 넘어, 보수적인 성담론의 수용과 슬러트 세이밍³²을 포함하였는데, 단순히 성적 물화와 강간 문화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타인과 섹스하는 여성이 여성 인권을 낮춘다는 지적을 동반하였다. 여성 인권 하락의 원인을 부정확하게 지목한 것은 물론, '문란한' 여성을 모욕주는 여성혐오(슬러트 세이밍)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페미니즘은 이를 당연하게 수용했다. '완전한 여성 서사'의 조건에도 이것이 포함되었고, <아노라>와 <정숙한 세일즈>가 받은 평이

30 온라인 페미니즘에서 여성이 타위가 아닌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성애적인 매력을 어필할 때 이를 비교하며 가리키는 단어. 온라인 페미니즘에서는 주체적인 선택이라고 해도, 그것이 여성이 성적 대상화되는 경향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31 기본적으로 강간이 만연하고 정상화되는 문화를 가리키는 페미니즘의 학술 용어. 페미니즘 학자 리베카 슬넛은 "강간이 만연한 환경.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성폭력을 규범화하고 용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32 슬러트는 정숙하지 않은, 문란한 여성을 가리키는 속어로, 슬러트 세이밍이란 성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 통념과는 다른 사람들의 웃자림과 태도, 연행을 비난하고 망신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성에게 "네가 문란해서 다른 여성에게 피해를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 맥락에 맞닿아 있다. 남성과의 연애와 섹스를 당당하게 이야기한 『쌍년의 미학』이 온라인 페미니스트로부터 비판받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경계와 비난—‘탈성애’가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성적 물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였고, 성적 대상 이상의 여성 캐릭터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섹슈얼리티와 관계되는 여성을 비난하는 문화, 여성 퀴어 간의 관계에서까지 성애를 배제해 버리는 것은, 가부장제—이성에 중심적 성 규범과 맞닿아 있어, 페미니즘의 실천으로 보기 어렵다. 여성의 성적 욕망과 관계,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남성적 시선과 욕망, 그 산물로 취급하는 것이 과연 페미니즘일까? 오히려 여성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면을 축소하는 것이 아닐까?

이상한 나라의 감상자(혹은 소비자?)

2010년대의 여성 서사 열풍을 일으킨 게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향유하던 감상자들과 할 수 있다. 이들은 그냥 감상자가 아니라 ‘여성’ 감상자, ‘페미니스트’ 감상자,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인 감상자였다. 이들은 그저 여성 서사를 즐겁게 보고 감상하기만 하는 게 아니었다. 미디어 속 수많은 여성혐오에 항의하며 혐오적 매체를 보이콧하고, ‘좋은’ 여성 서사를 찾아 모두가 함께 보기를 독려하고, 강조했다. 2016년의 ‘넥슨 보이콧 사태’³³부터 2024년에서 지금까지 진행 중인 ‘네이버 웹툰 불매 운동’³⁴, 여성 서사 작품이 나오면 모두가 봐야 한다고 널리 알리는 수많은 트윗…더 이상 오락성과 작품성, 취향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창작물이 가지는 윤리 — 여기서는 성인지 감수성 — 가 창작물을 짚막 망하게 하거나 흥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 여성을 존중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작품은 흥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작품은 망한다. 소비자인 여성, 페미니스트가 좋은 작품을 흥행시키

33 2016년 7월, 넥슨의 게임 <클로저스>의 캐릭터 티나의 성우인 K 씨가 메갈리아 페이스북 페이지 소속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제작된 티셔츠의 인증샷을 SNS에 올리자, 게임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부 유저들이 이에 반발하며 성우 교체를 요구했고, 이에 넥슨은 하루만에 성우를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트위터에서는 해당 사건을 여성혐오 사건으로 문제시하며, K 씨를 지지하고 넥슨을 보이콧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34 2024년 네이버 지식대공모전에 <‘이세계 풍풍남’이라는 작품이 1차 심사를 통과하자, ‘풍풍남’이 지닌 여성혐오적인 의미(정숙하지 못한 여성과의 결혼을 ‘설거지’로 표현하며, 이로 인해 남성 — ‘풍풍남’— 이 여성 대신 경제활동, 가사노동을 하며 손해본다는 뜻을 드러냄)와 여성혐오적인 내용으로 작품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네이버 웹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불매가 시작되었고, 불매운동이 진행되던 와중 네이버웹툰 트위터 공식계정이 다른 작품을 홍보하며 “불매합니다. 불티나게 매입하기”와 같은 문구를 올리자 불매운동을 조롱한다는 논란이 일어나며, 불매운동이 한층 거세졌다.

고, 나쁜 작품은 비판할 것이니까. ‘소비자주의’는 이렇게 온라인 페미니즘의 핵심 중 하나로 중요하게 기능하였다.

‘돈쫄’³⁵과 불매, 이 두 가지는 온라인 페미니즘 소비자 운동의 중심 전략이다. 여성 소비자가 좋은 것, 즉 페미니즘적인 것을 활발하게 소비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여성)가 이제는 페미니즘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표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좋지 못한 것(반페미니즘적, 여성 혐오적인 것)은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이제는 여성들이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걸 보여준다. 여성 서사에 관해서는, 문화 콘텐츠 소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이 여성 서사 작품을 활발하게 ‘소비’하고 비 여성 서사 작품에서 여성 혐오적 요소를 비판·보이콧하며, 더 이상 여성혐오를 원치 않는다는 걸 드러냈다. 이 두 가지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전략이었다. 창작자들과 콘텐츠 시장은 (아직 부족하지만) 여성들의 요구에 응하였다. 2024년 한국 영화 산업에서 여성 창작 인력이 모든 직종에서 상승했으며, 흥행 순위 30위 내 작품 중 16편이 벅셀 테스트에 통과하였다(59.3).³⁶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 문학 분야에서는 더 두드러진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여성 작가들의 SF가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젊은작가상 수상 역시 꾸준히 여성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왔다.³⁷ 물론 여성 창작자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 서사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주목받은 여성 창작자 다수가 여성 서사 작품을 내보였고, 여성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았다. 영화와 문학 말고도 만화, 드라마, 게임 등에서도 기존의 여성혐오와 차별을 대폭 개선하거나 여성서사를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사회에서 남성보다 열위에 있던 여성이,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비력이라는 하나의 권력을 획득한 듯했다.

여성 서사에 관한 온라인 페미니즘의 소비자 운동이 꽤 성과 있었던 것도 맞지만, 뚜렷한 한계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돈쫄과 불매가 주 전략인 소비자운동은, 결국 소비력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 논리에 포섭되어, 그 안에서만 유효하게 작동한

35 돈‘4’흔쫄내다의 합성어로, 사회적으로 선하고 옳은 행동을 한 사람 혹은 가계의 물건을 소비해준다는 소비 문화의 신조어

36 진윤서, “[코픽뉴스] 2024년 스크린을 빛낸 여성들의 눈부신 활약! 2024년 성인지 결산 발표”, 영화진흥위원회, 2025.03.10,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noti/findNewsDetail.do?seqNo=55278>

37 임인택, “2025년 ‘젊은작가상’ 대상에 백은유…수상자 7명 전원 여성”, 한겨레, 2025.02.04,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180702.html>

다는 것이다. 소비력이 없는 소비자, 혹은 ‘소비자’가 아니라면 두 전략이 유효하게 먹히지 않는다. 2023년에 개봉한 영화 <바비>는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미국의 영화이다. 개봉 전부터 해외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봉, 프로모션을 한 <오펜하이머>와 함께 ‘바벤하이머(Barbenheimer)’ 등의 밈을 만들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선풍적인 인기를 끈 페미니즘 영화 <바비>가, 우리나라에서는 8만여 명의 관객만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동 시기 개봉한 국내 영화 <밀수>가 여성들이 활약하는 여성 서사 작품이면서 100만 명 넘는 관객을 동원했음에도, 10만 명이 안 되는 관객만이 이 영화를 본 것이다. <바비>의 소재인 바비 인형이 우리나라에 친숙하지 않거나,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페미니즘 메시지가 반감을 산다든가 등의 분석이 있었지만, 이 영화를 관람했거나 관심을 가진 관객들 대부분은 상영관이 적었다는 걸 지적했다. (나도 이 영화를 볼 때, 다른 영화에 비해서 상영관이 많지 않다는 걸 확인했다) 어떤 지역에는 개봉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바비>의 상영관이 2곳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개봉 3주 차쯤에는 아예 상영관이 없다는 곳도 있었다. 그러니 보고 싶다고 해도, 애초에 상영을 해주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여성 서사 영화가 많은 독립, 예술 영화 분야일수록 더 그러하다. 페미니즘과 여성의 이름으로 ‘돈썰’ 내고 싶어도, 내줄 방도가 없는 것이다. 불매 역시 문제가 있다. 여성이 소비자로서 여성 혐오적이고 반페미니즘적인 상품을 보이콧한다면, 매출이 줄어들면서 기업이 여성들의 메시지를 ‘알아먹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런 믿음으로 이루어진 불매가 효과를 낸 경우도 종종 있지만, 불매 전략이 먹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클로저스 성우 교체 사건과 일명 ‘집게손가락’ 사태³⁸로 불리는 페미니즘 사상 검증 사건이 일어난 게임 회사 ‘넥슨’의 경우, 많은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의 항의, 불매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사건을 흘려보냈다. 게임 <림버스 컴퍼니>의 제작사 ‘프로젝트 문’ 역시 남초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페미니즘 사상 검증에 동조하는 사건으로 유저층의 다수였던 여성들이 불매를 선언하고 소비층에서 이탈하였다. 하지만 매출 감소에도 넥슨과 비슷하게 이에 대한 어떤 사과나 개선이 없었다. 불매가 장기화되고 있는 네이버 웹툰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은 합리적으로 수익을 쫓기

38 지난 2023~2024년,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게손가락’이 남성혐오를 상징한다며, GS25, BBQ 등 대기업부터 정부 관공서까지, 집게손가락 혹은 집게손가락과 유사한 이미지가 등장할 시 ‘남혐’이라고 하며 이미지 수정이나 그와 관계된 담당자 해고를 요구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넥슨의 경우,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캐릭터 홍보 영상에 집게 손가락 모양이 등장하자, 이를 제작한 애니메이션 업체 소속 애니메이터들의 SNS를 뒤지며, 그 중 페미니즘 게시물을 올린 한 직원을 범인으로 지목하며(해당 직원이 남혐으로 지적된 그림을 그리지 않은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신상털이와 사이버불링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때문에, 불매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고 타격을 입는다면 여성혐오를 개선하고 페미니즘에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것이다. 이들은 주 소비자층이었던 여성의 말을 듣지 않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반페미니즘 커뮤니티의 편에 서고 침묵했다. 이들은 여성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대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소비자’는 반페미니스트 이용자들이었다.



해당 트윗 외에도 <바비> 상영 당시에 상영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트위터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소비자 여성의 소비력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비 자체를 페미니즘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페미니즘이 소비주의에 기반한다면, 페미니즘에 도움되는 소비를 못하는, ‘소비자’가 아닌 소비력 없는 여성이 배제된다. 무엇보다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바는 시장 논리와 자본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시장 논리와 자본주의의 ‘합리

성’과 별개로, 그리고 그와 공모하여 일어나는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타파하는 게 페미니즘의 목표이다. 사회 구조 속 뿌리 깊게 박힌 여성을 향한 부조리는 구조 자체가 변화함으로써 사라질 수 있다. 개인이 더 여성주의적인 상품을 소비하는 게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을지라도, 소비하는 선택 자체가 페미니즘이 될 수는 없다. 소비 자체가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결국 사회적 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적인 선택의 차원으로 내려오게 할 뿐이다. 여성 서사를 소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쾌함 없는 즐거움을 주고 임파워링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 자체만으로 여성 인권을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성 서사를 소비하면 여성 인권이 올라가고, 비 여성 서사를 소비하면 여성 인권이 내려간다는 믿음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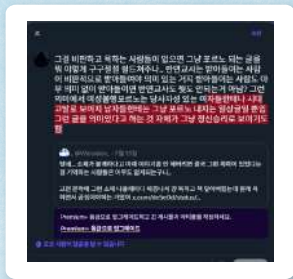
여성 서사에 대한 소비주의는 마치 소비가 곧 페미니즘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것만 하지 않았다. 감상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온라인 페미니스트의 위치를 상당히 기묘하게 만들었다. 여성 서사 소비 = 페미니즘, 도식화된 여성 서사의 조건, 클린과 뿔음을 걸러내는 필터, 낙인찍기...일련의 여성 서사를 둘러싼 관행은 ‘감상자이면서 소비자’인 사람들을 ‘소비자’로 바꿔갔다. 소비와 감상을 무 자르듯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두 가지로 구분하겠다. 소비는 작품을 일차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플레이하는...말 그대로 ‘소비’하는 것이고, 감상은 일차적으로 작품을 소비하며 온갖 감정과 생각을 떠올리고, 해석과 평가를 풀어내는 행위이다. 그러니 감상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것은 작품을 보고 나서, 트위터든 영화 전문 잡지이든, 자기 폰 속의 메모장이든 어디든 그에 대한 후기와 자기 나름의 감상을 이야기하는 일이다. 여성 서사를 소비하고 감상한다는 것은 여성 서사 작품을 일단 소비하고, 그 이후 작품에 담긴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찾아 해석하고, 이를 비평하는 일이다. 한창 여성 서사에 관한 논쟁으로 인터넷이 후끈 달아올랐을 때, 여성 서사 작품을 소비한 후 트위터 등에 나름의 긴 후기를 남기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점점 더, 여성 서사의 소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고, 감상은 필수가 아닌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더 이상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직관적으로 페미니즘을 드러내는 작품(코르셋 없는 여성이 연애와 결혼 없이 남자들을 물리치며 주체적으로 행복해지는 이야기)을 찾고, 그것만이 유의미한 여성 서사/페미니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극단적으로) 메시지가 어떻게 되든, 여성이 불행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등장하면 포르노이고, 그것이 사회 고발 작품이든 풍자하는 작품이든, 페미니즘적인 의도를 전하는 데 실패한 창작물이다.

2022년에 발매된 여성 아이돌 그룹 '아이돌'의 곡 〈Nxde〉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남성주의적 시선을 비꼬는 메시지를 담았다. 노래와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 트위터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독서광에 지적이었음에도 '금발 백치' 섹스심벌 이미지로 대중에 각인된 마릴린 먼로를 오마주한 뮤비의 장면들, '변태는 너야'라고 풍자하는 직설적인 노래 가사 등에 호평을 내린 것이다. 물론 당시에 이를 결국 여성이 성적 대상화되는 '주체적 섹시'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여성 아이돌로서 과감한 행보를 보인 아이들을 응원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평가와 여론이 꽤 달라졌다: 변태는 너라고 지적하며 노래를 부르더라도, 결국 뮤



사회 고발과 풍자는 비판이 포함되지 않는 한 '포르노'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 창작물과 관련된 비평을 의미없거나 수고스러운 것으로 보는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



직비디오와 음악방송에서는 '성적 대상화'될 만한 의상을 입었다. 아무리 비교아도, 남자들은 결국 그들을 대상화할 뿐,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런 풍자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했다. 일본의 음악그룹 '아타라시 각코'(새로운 학교의 리더즈)의 곡 〈オトナブルー (오토나 블루)〉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듯한 가사와 대비되는 분위기의 익살스러운 퍼포먼스로 원조계제 문제를 풍자하는 노래였지만, 이 역시 사람들은 결국 가사만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패한 창작물이라는 평을 받았다. 〈서비스스턴스〉도 그렇다. 남자 관객들은 엘리자베스 수가 외모 강박과 '서비스스턴스'로 인해 망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할 테니, 결국 불행 포르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이런 평들은 창작자들이 이런 작품 걸보기에는 페미니즘 메시지를 담았지만, 사실 여성 혐오자들이 즐길 만한 작품을 창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대중이 작품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일까 봐, 거부 페미니스트 남성들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즐기거나 할까 봐. 이런 우려가 이해되기도 한다. 사회를 고발하고 비꼬는 작품에서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뱉어내고,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내어 즐기만 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니까. 문제는 그것을 온전히 창작자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일단 작품이 창작자의 손을 떠나고 나면, 감상자들에 의해 얼마든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지어 창작자가 작품을 만들 때 의도한 바와 다른 방향으로도 말이다. 그런데 창작자가 전하는 의도와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을 만한 작품을 만들라는 요구는 창작자의 권한을 넘어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오로지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만 도출할 수 있도록 '완전한 여성 서사' 작품을 만든다면 그 작품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일 것이다. 답을 수 있는 내용이 완전한 여성 서사에 부합하게끔 한정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이 쉽게 소화되긴 하겠지만, 얼마나 즐거움을 더 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졌다 한들, 모두가 (심지어 안티 페미니스트들까지)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일까? 글썽... 그들이 그런 여성 서사 작품들을 볼 때, PC가 만친 작품, 여성은 지운 채로 그냥 좋은 작품이라는 식으로 평가하며 페미니즘을 이리저리 피한다. 이는 결국 감상의 문제이다. 페미니즘 비평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기존의 비평이 얼마나 남성 중심주의적이며 여성 혐오적인 맥락을 가지는지 지적해야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감상자 측으로 항할 책임의 화살을 창작자에게 전부 돌려 '완전하고 불편하지 않은' 여성 서사만을 창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감상 과정은 지우고 그저 편한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의 태도에 불과하다. 여성 서사를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불편함을 제거하고, 직관적인 해석만 남은 작

품을 ‘완전한 여성 서사’로 추구한다면, 여성 서사와 페미니즘 비평의 폭은 좁아지고, 창작자에게 더 부담이 생긴다. 결국 온라인 페미니즘이 그동안 여성 서사를 추구해 온 바와 모순된다. 여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이야기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라인 페미니즘을 통해 여성들이 여성 서사를 그토록 원하고 부르짖었던 이유일 텐데, 정작 ‘여성’은 한 쪽으로 좁혀졌다. 이전보다는 더 페미니즘적이고 덜 여성 혐오적일지라도, 결국 여성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주류에 승인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나가며: 나의 공수치 컬렉션들

나에게는 ‘공수치’³⁹ 컬렉션이라는 영화 컬렉션이 있다. 여기에는 <레이디버드>, <프란시스 하>, <파니 핑크>, <미쓰 홍당무>,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이런 영화들이 있다. 나의 ‘공수치’ 컬렉션의 영화들은 전부 다 여성 서사 작품들인데, 대체로 쪽팔리고 한심한, 멋진 능력보다는 부끄러운 모습이 먼저 나오는 여자들의 이야기이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자꾸 정지 버튼을 누르고, 눈을 가리거나 극장을 나가고 싶어진다. 왜냐하면 보는 내가 다 부끄러워서. 하지만 나는 이 영화들을 정말 좋아한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 영화들이 지극히 ‘여성적’인 여성 서사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내내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거지?” 글 쓰는 내내 그동안의 ‘여성 서사’와 온라인 페미니즘을 많이도 까발리고 비판했지만, 결국 내가 여성 서사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한두 가지 방향의 서사만을 향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여성 서사가 그저 페미니즘의 다른 표현이기만 한 것을 원치 않는 마음에서였다. 한편으로 여성 서사를 두고 벌어진 각종 논쟁과 온라인 페미니즘이 나름대로 쌓아 올린 의미를 전부 다 부정하고 싶은 것도, 여성 서사라는 범주를 해체하고 모든 조건을 없애길 원하는 게 아니다. 여성 서사를 한 가지로 통합할 ‘완전한 여성 서사’란 개념을 해체하고 싶었다. 그래서 글을 쓰며 생각했다. “나에게 여성 서사란 무엇이지?” ‘완전한 여성 서사’에 대해 조목조목 따진 후 마지막에는, 새로운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여성적’인 여성 서사를 이야기한 것이다.

39 ‘공감성 수치’의 줄임말. 공감성 수치란 미디어 속의 등장인물이 장피 당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혹은 부끄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연행을 할 때, 시청자가 마치 그 상황에 놓인 것처럼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나에게 여성적인 여성 서사라는 것은, 여성의 시선과 생각, 마음으로 여성들의 온갖 삶을 담아내는 서사란 의미다. (쪽팔리고 이상한 게 곧 여성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 멋지고 끝내주는 여자가 아니어도 된다. 부끄럽고 한심하고, 능력이 없고 남자를 밝혀도, 여자를 밝혀도, 미치고 이상해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여자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고,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세상에 무수히 많은 여성이 존재하는 만큼, 그들에게는 다양한 면모가 있고, 그래서 여성 서사로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무수히 많으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여성 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등장해서 미디어를 지배하지 않길 바란다. 여성 서사가 다루는 온갖 여성의 삶이 실제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내리는지, ‘페미니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싶지 않다. ‘여성적’인 시선으로 포착하고 담아낸, ‘여성적’ 생각을 표현한 서사, 그래서 무수히 다양한 여성의 이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공수치’ 컬렉션을 좋아한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 그들의 이야기가 페미니즘적이든 그렇지 않든, 여성이 그럴 수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한 여성 서사니까.

참고문헌

- 권김현영 외, 『대한민국 넷페미史』, 나무연필, 2017.
- 허운 외,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 한겨레출판, 2024.
- 우에노 지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2012.
- 앤디 자이슬러, 『페미니즘을 팝니다』, 안진이 옮김, 세종서적, 2018.
- 김수연, 「여성 서사와 퀴어 서사: <헤어질 결심>을 통해 본 영화(비평)의 젠더화」, 『문학과 영상』, 24권 2호, 2023, pp. 343–66.
- 윤서연,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 여성 영화 관객의 팬덤화 연구: 여성 서사 응원과 검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21.

Vol. 72

2025년 문우 여름호

활동 정리

3.27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활동 후기

3.27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활동 후기

편집위원 야부



지난 3월 27일, 문우편집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전국시민총파업에 참여했다. 당일 문우편집위원회는 총파업의 일환으로 여러 학내 단체들과 동맹자체휴강에 동참했고, 3시경 3.27 평등시민 총파업 현장인 시청역에 모였다. 해당 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열띤 자유발언과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집회의 마지막 순서인 일곱빛깔무지개 합창단 미루의 공연이 끝나고, 문우편집위원회를 포함한 참가자들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5시 시민총파업 집회를 위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했다. 다양한 소속의 시위대가 광화문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문우편집위원회는 광장을 메운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12.3 내란 이후 매주 이어져온 투쟁과 저항의 외침은 여전히 뜨거웠고, 이는 일주일일 지난 4월 4일 마침내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3.27





2025 Summer Vol.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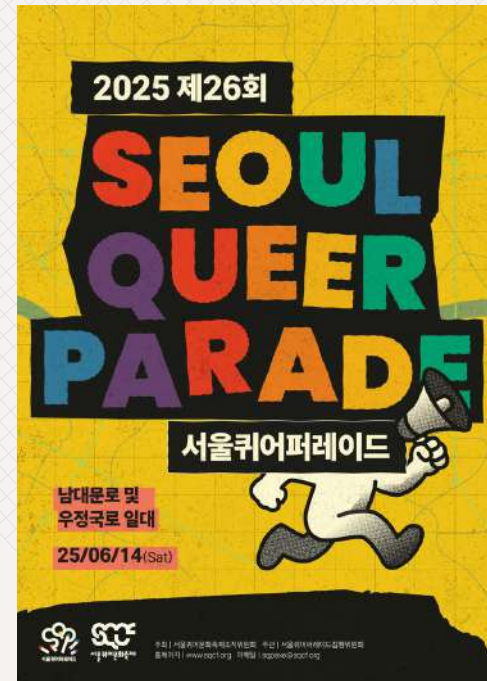


1기 서울퀴어문화축제

2025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후기

편집위원 시골

2025년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중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사가 6월 14일 서울 남대문로 및 우정국로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문우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들이 있었다.



1기 서울퀴어문화축제

다음은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사 현장에 참여한
문우편집위원들의 참여 후기이다.

시골

이날은 정말 더웠다. 이렇게 6월 중순이 되어서야 축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매년 서울시의 공간 관련 행정 때문이라는 것이 정말 싫다. 많은 한계점이 있겠지만 나는 아직 이 세계, 그리고 한국에서 퀴어문화축제 그리고 퀴어퍼레이드가 위시할 수 있는 가치와 목소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행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존재가 연대하며 서로 환대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함함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 퀴퍼였던 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고향인 부산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퀴퍼가 열리지 않아서 중, 고등학생일 때 항상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가서 그 한을 조금 푼 것 같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좋았지만, 옵티칼 청원 홍보, 이태원 참사 추모, 팔레스타인 연대, 노동자/고공농성하는 동지들과의 연대처럼 다른 소수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다...지금은 무사히 내려오셨지만 6월 초까지만 해도 고공농성 중이었던 거통고 김형수 동지가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손 흔들려주던 순간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다. 물론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많이 남아있지만...너무너무더웠지만...ㅠ

+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말 정~말로 많았는데(장난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밀려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래도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안 할건지...?! 빨리 빨리 제정하라~!

덧붙여, 이번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사와 관련된 생각해 볼 점 몇 가지를 나열하겠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생겨난 새로운 흐름이 여럿 엮이는데 퀴어퍼레이드였다. 퍼레이드 참여 트럭 중에는 윤석열퇴진소수자공동행동의 트럭이 있었으며, 민주노총과 언론노조가 함께 낸 부스는 인파로 가득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이 같이 운영한 부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간의 퀴어퍼레이드와 비교했을 때, 단체의 깃발만큼이나 개인 제작 깃발의 수가 눈에 띄게 많이 늘어, 깃발로 가득한 행진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 이어진 수많은 시위의 현장에서 휘날렸던 반가운 깃발들을 다시 만나고, 투쟁과 연대의 흔적을 되돌아보며 그 획을 이어 나가는 시간이었다.



“세종호텔×옵티칼×거통고(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 X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X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트럭이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였다. 또한 퀴어퍼레이드 행진 구간은 거통고 고공농성 투쟁 현장과 세종호텔 고공농성 투쟁 현장을 지나치는 동선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 이후 몇 년간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참석한 사람이라면, 행진 행렬이 세종호텔을 몇 번이고 지나치는 동안 세종호텔 노동자의 복직 투쟁이 지난하게도 이어져 왔음을 직접 목격하였을 것이다. 2025년의 서울퀴어퍼레이드를 함께한 사람이라면, 거통고 고공농성 투쟁 현장의 아래를 지나쳤을 테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국회 청문회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의 QR코드를 마주했을 테다. 서울퀴어퍼레이드와 그 참석자, 연대자 모두는 이 모든 투쟁의 기억을 잊지 말고, 꾸준히 연대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24년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파트너십 단위로 참석하였던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이하 길리어드)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이번 연도의 파트너십 단위 목록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길리어드는 HIV 치료 및 예방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 회사이다. 길리어드는 약의 특허권을 독점하여 약품 가격을 고가로 책정하고, 시장 독점 연장을 위해 자사 제품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약품 판매를 지연하는 등의 만행으로 성소수자 및 HIV 감염인의 의약품 접근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등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적극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 길리어드와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독일대사관, 주한영국대사관 등의 파트너십 단위 참여에 대한 여러 항의 행동 및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이 이루어진 바 있다.

서울퀴어퍼레이드 측은 취재-촬영 가이드라인을 공지하며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조항을 그대로 발췌하여 게시하였다. 해당 조항에는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는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연히 성소수자, 그리고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도 HIV감염인, 성노동자, 약물사용자는 존재한다. ‘연결 짓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러한 존재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분리를 시도하고,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은 또 다른 혐오와 차별의 시작일 뿐이다. 이에 성노동자 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와 연구모임 POP는 앞서 설명한 비판의 요지를 담은 입장을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송부하였다.

문우 71호 독자모임

정리정돈 단(丹)



일시 2025. 07. 14.

장소 을지로 일대의 카페

참가인원 고대문화 _ 하영, 수민, 정후, 서연

문우편집위원회 _ 단(丹), 포도, 지구인, 고요, 에멜무지로

1. 외부 디자인 및 내지 구성

포도

이번 표지 색이 강한 빨간색인데, 제가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한창 집필 중이던 1~2월에 나라가 시끄럽고 탄핵집회가 이어졌는데요, 빨간색이 사람들 인식 속에서 국민의힘 정당을 상징하게 된 것이 싫었고, 그래서 본디 투쟁의 색이었던 빨간색을 다시 뺏어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는 양희은 선생님의 노래를 인용해서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를 넣었는데요, 민중가요와 빨간색을 함께 제시해서 투쟁의 색, 빨간색을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정후

제목과 표지가 메인기획과 특별기획, 이 두 가지 기획이랑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를 떠올리면 뜨거운 지구온난화가 생각나고, 게다가 탄핵정국에서 집회 나갈 때 많이 부른 민중가요 가사이다보니 적절하게 디자인이랑 제목이랑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수민

우주 배경의 내지 디자인은 PDF로 읽는 것보다 책으로 읽는게 더 예쁜 것 같아요. PDF로 읽을 땐 글자가 잘 안 읽혀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2. 편집장 서문 / 유연

포도

문우는 학기 중에 메인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방학 때 나오는 글이 메인세미나 주제에서 자연스럽게 메인기획으로 이어지곤 했어요. 작년 2학기 메인세미나 주제가 ‘기후위기&자본주의’였고, 많은 분들이 그 주제로 쓰려고 하셨는데 시국에 따라 많이들 변했습니다.

정후

기후위기나 내란사태나 다 크고 거대한, 한 개인이 이겨내지 못할 재난과 같은 사고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안부를 묻는 것,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안부를 물어서 표현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단(丹)

유연이 편집장으로서 편집위원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묻어 나서 그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유연에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글이기도 하고, 이런 시국에서 같이 해줘서 고맙다는 마음도 느껴져요. 덕분에 “시대와 박자를 맞춰 숨쉬며,” 라는 마치

막 문구처럼 유연이랑 같이 숨쉬는 그런 교지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3. [메인기획] 스크린 너머의 물질세계 / 핑

포도

처음 기획안이 나왔을 때 글의 참고문헌이 어마어마해서, (핑이) 많이 부담 가진 상태로 썼을 까 봐 편집회의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잘 정리된 글을 써 줘서 고마워요. 이 글이 저희 탄핵시국에 문힐 뻔한 저희 메인세미나 주제를 잘 살린 글이어서 핑에게 고맙습니다.

정후

글을 읽을 땐 몰랐는데, 이 글이 뒤에 나오는 단(丹)님의 글이랑 연결되어 보이길래 흥미로웠어요.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그 자리를 대체하는게 기술, 금융자본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글이 단(丹)님, 핑님의 글이라서 감사하게 읽었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잘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녹색거짓말 파트에서 ‘자본이 어떻게 물질성을 지우고 친환경적인 척을 하면서 자신들의 산업을 늘리는가’에 대한 부분 말고, 그 전에 ‘한 제품이 생산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나오는지’에 관한 예시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녹색거짓말 쪽의 분량이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수민

저도 편집장 서문에서는 개인에게 의무를 지우는게 정당함에 대해 의문을 던졌는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의무를 던지기보단 개인적 차원의 행동도 논의하면서 의무가 지워지지 않았나 싶었어요. 개인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기후위기를 이런 식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전략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지적했으면 더 재밌는 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지구인

핑이 많이 고생했던 걸로 기억해요. 주제가 광범위하잖아요. 글에서 어디까지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또 해결책이 아주 명확한 문제가 아니냐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글에 다 담을 수 있을지 고민했던 거 같아요.

4. [메인기획] 공동체를 향한 상상 / 함함

정후

작품을 통해서 대안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작업을 되게 좋아해서 재미 있게 읽었고,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내용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다만 글을 시작할 때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이랑 돌봄에 관한 내용. 기후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돌봄의 내용을 써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분량이 조금 많이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포커스를 돌봄 자체, 생활동반자 자체에 잡았다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서연

아니면 가족주의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사랑이라는 가치 없이 어떻게 가족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써보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영

개인적으로 흥미로워하는 주제였는데, 드라마의 예시를 들어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실제로 돌봄을 실현하려는 공동체 운동이 있으니 그런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실에서의 이야기를 더 짚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구인

여기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작품이 4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각 작품의 내용을 소개하며 콘텐츠 같은 상상의 것에서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뽑아 이야기해주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대학 교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를 잘 아는 것이 아니기에 다양한 가능성을 담은 좋은 작품을 소개한다는 자체로 이 글의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해요.

포도

뒤에 나오는 지구인 글도 그렇고 함함 글도 그렇고 이 호가 전체적으로 무거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미디어랑 같이 접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환기시켜주는게 귀하다고 느껴져요. 교지의 내용이 꼭 너무 어두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후

생활동반자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할 때. 법의 논리,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설파할 수도 있는데, 존재를 인정하는 법 같은 것엔 (사회적인) 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비약은 사실 논리정연하게 말해줄 수 있는게 아니라 문화적 콘텐츠로 보여주면서 더 잘 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글에서 택한 소재가 원하는 주장을 하기에 적합한 소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서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냥 옆집에 살 것 같은 사람들이고. 매체를 보는 이가 그 매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혐오를 짊어지고 가는 퀴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볼 수 있으니까, 어떤 삶을 가시화하는데 이런 미디어가 주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무리에는 어떤 것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풍경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쓰신 분의 의견이 좀 더 들어갔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하영

사각지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대안적인 가능성 많다고 생각해서 제도로 귀결되는게 아쉬웠어요. 제도 밖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제도를 넓히자는 내용이 많은데, 그 이외에 제도 밖에서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상상을 해보는 것도 더 재미있는 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요

돌봄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저 스스로는 공동체를 꾸리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다든가, 공동체를 아주 원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한 집에서 가족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없는 편이라서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야지라고는 생각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기에 마음으로 공감이 안되는 편인데, 이 글을 보면서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정상이족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미디어를 보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기사를 읽을 때보다 몰입하고, 캐릭터를 실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면서요. 퀴어하지 않은 사람들도 읽는 교지니까, 그런 미디어를 소개하는 역할도 잘한 것 같아서 재밌게 읽었어요.

5. [특별기획] 탄핵 대자보 아카이빙, 탄핵 집회 속의 문우 / 데어

고요

작년에 송도에 있을 때 동기의 지인이 문우 대자보를 보고 나서 다른 대자보는 다 탈정치화된 기조로 작성되었는데 문우는 이런 내용을 다 소위 ‘정치적인’ 것을 떼어놓고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말만 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줘서 좋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문우는 이러는데 다른 단체들은 왜 이러냐는 얘기를 담아 대자보도 써 보려 했다고 그랬어요..

포도

대학이 대자보 쓰는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대자보 쓸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정후

12월 11일 대자보를 보니, 한창 광장이 만들어질 조짐이 보이고, 탄핵정국이 보이고, 16년째랑 어떤 다른 광장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기억이 나요. 또 심각하게 탈정치화되고 극우화된 학교가 바뀔 수 있을까 우려 반 기대 반, 뒤섞인 감정으로 대자보를 붙이고 학내에서 집회를 하고 그랬던 기억도요. 연세대에서도 비슷한 긴박함, 기대가 있었다는 게 느껴지는 대자보였습니다.

지구인

상황이 안 좋은 걸 아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를 하게 되니까 이상한 들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같은 단체들도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을 받기 시작하고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좋았어요. 실제로 이번에 동아리 신입 인원 모집이 많이 된 것도 이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해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다 신기했어요.

서연

대자보가 연상되는, 아카이빙에 적합한 글 디자인 같아요.

6. [특별기획] 계엄 이후 구성된 학내외의 광장에 대한 개인적인 재현과 기록 / 유연

정후

이렇게 학내 상황을 아카이빙 하는 글은 교지로서 필요하다 느껴요. 세 개의 광장, 광화문의 광장,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진 광장. 학내에서 만들어진 광장. 이 세 개를 비교하시면서, 대학교 내의 광장이라고도 부르기 위한 공간에서 16년의 실수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실수가 아닌, 잘못을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행태를 잘 써주신 것 같아요. 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회라는 제도권 조직을 벗어나서 함께하는 연세인권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과정까지 잘 써주신 것 같아서, 이 추후에 함넛이 어떻게 활동했고 내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지는 기사 같아요. 다음 호에서 이어서 써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한 광장과 지금 생각하는 광장이 또 다르듯 그런 걸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네요.

수민

저도 처음에 2016년에서 시작해서 모두의 광장, 연세대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52쪽에서 53쪽 넘어갈 때 부산에서 자신을 '술집여자'로 소개한 분의 발언이 나와있고,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편견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나왔다고 밝혔던 적혀있는데, 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글에서 조금 더 차별해서는 안된다, 성노동자에 대한 혐오 또한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덧붙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7. [특별기획] 사라져가는 땅을 바라보며 / 단(丹)

하영

긴 글인데 구성이 탄탄하고 버릴 부분이 없고, 방향을 잃지 않고 잘 마무리해서 좋았어요.

지구인

개인적인 주제에서 출발해서 소위 개인적이지만 많은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기교가 있고, 몰입도와 힘이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글을 이렇게 분량 있게 써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대단해요.

정후

단(丹)님의 개인적인 상황이란 남태령의 상황이란 엮이는 부분이 좋았어요. 단(丹)님이 스스로 자신은 농민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인가, 어디에 속하는 정체성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남태령이라는 공간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연대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이 단(丹)님의 정체성이란 비슷했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처럼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좋았습니다.

서연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의 위기에 놓인 것이, 단순히 명칭하고 정치적 결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그 사람의 과오, 의도적 차별과 혐오 때문에 그렇게 치달은 것이잖아요. 양곡법도 그렇고 농촌의 사정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들이 외면해왔던 문제들이 남태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남태령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졌는지 왜 사람들이 그날 농민들과 같이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탄탄하게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생각해봐야 하는지 짚어주어서 좋았습니다.

단(丹)

바쁜 사회를 살면서 내가 불안하다는 걸 알아도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하다 지레짐작한 것들을, 그래 우리가 그래서 불안하지, 라면서 공감을 가져오는 글이었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계속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을 긍정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9. [문우의 눈]

“세상은 너를 잊었다 해도 한 번도 너를 지운 적 없어” / 지구인

서연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좋아하던 대상이 나와 아예 대척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좋아했던 시간들에 안 좋은 덧칠이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글 뒤에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스스로 되새김질하고 정리하면서 새로운 메시지를 꺼내시는 것 같아서 좋은 승화였다고 생각했어요. 상처받고 가만히 있으면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이렇게 극복해 볼 수도 있구나.

정후

작품에서 작가라는 존재가 전지전능한 존재로 흔히 표상되곤 하잖아요. 이 작품을 좋아하는데 작가가 너무 별로일 때 벌어지는 모순을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거예요. 같은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작가가 준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이 제일 눈이 갔던 것 같아요. 팬이라는 존재가 수동적이고 작가에 비해 약한 존재로 표상되기 쉬운데, 작가가 만든 작품에 다시 맥락을 주고 재정의하는 그런 과정이 눈길이 가서 좋았어요.

수민

팬덤의 반응으로 이런 실망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팬덤의 정치성이나 팬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서술하면 더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정후

남태령이랑 한강진이랑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거기서 모인 이유가 탈맥락화되고, 모였다는 사실만이 업적, 상징처럼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것 같고 그건 문제라고 봐요. 근데 단(丹)님 글을 보고, 우리가 그곳에서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는 게 상기되어서 좋았습니다.

서연

왜 4번 소제목이 “땅을 담으며,” 인가요?

단(丹)

우선은 글을 열고 닫는다는 의미처럼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열고 닫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언제 맨 땅을 밟아보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땅이 계속 무언가로 덮여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위를 했음에도 땅은 아직도 닫혀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정후

쌀 자체가 정치적이고, 농업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농업 정책에 대해서 그게 정치적이라는 점을 다시 짚게 되었습니다. 농민도 어떠한 갈라치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인상 깊게 와닿았어요. 남태령이라는 곳이 갈라침 당한 사람들, 혹은 여러 정체성으로 인해서 차이를 지닌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잖아요. 정체성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현 정권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고요. 조금 더 농민이 어떻게 갈라치기가 가능한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 조금 썼어도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8. [문우의 눈] 흔들리는 존재의 기록 : 불안의 확장과 수렴 / 필자(筆者)

정후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위스 호수의 사진을 보는 순간부터 되게 명상하면서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흐름을 게임 사태랑 연결하시잖아요, 게임을 언급하기 이전과 이후의 간극 때문에 그 충격이 많이 와닿았어요. 다만 위험사회 텍스트는 게임 이야기를 하기 좋은 텍스트고 존재와 시간은 불안 이야기하기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두 텍스트를 합하는 글 닫는 부분에서 완전히 잘 합해지지는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앞의 글들이 광장에 대한 기록이라 머리가 뜨거워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지치는 글들이 있었는데, 이 글로 환기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순서 배치가 잘 되어있다고 느꼈습니다.

10. [활동정리] / 지구인, 데어, 포도

단(丹)

문우가 글로만 남지 않고, 행동으로 활동하고 그런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우에 들어올 사람들이 활동 정리에 남겨진 글을 보고 우리도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느끼게 된다면 이 코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이 탈정치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을 알리고 기록하는게 꼭 필요하니까 이 파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후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대자보 아카이빙 글을 문우가 써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문과대학교의 언론이, 글에 언급된 성평등위원회 관련 처사에 모든 문과대의 학생이 찬성하는게 아니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회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평등에 대한 의식 없이 성평등위원회의 의결권을 없었다고 지적한 점이에요. 우리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기록이 되냐 마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단(丹)

나중에 보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런 활동을 했구나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인

문성평위 관련해서 대학 내에서의 소위 광장, 공론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냈던 과정에서 답변이 잘 되지 않았던 일이 있으면서 이런 주제를 우리가 어디서 논의할 수 있을까, 이런 사안에 대한 진짜 문과대생들의 의견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단체의 이름으로 질의를 하고 질의서를 보낼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잖아요. 일단 성평등위원회가 생긴다면, 다른 학생들도 단체에 소속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더 넓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생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편집후기

밤

처음 교지에 글을 실는 거라 뭔가 떨리네요. 이번 글은 사실상 한풀이 글입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걸 누그러뜨리는, 그렇게 해서 다음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글이죠. 다음부터는 좀 더 전문적이고 탄탄한 글을 써보려 해요. 집필하는 내내 이런 글이 정말로 실릴 가치가 있나 싶었는데 다들 괜찮다고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글이 완성되는 데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읽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 교지를 만드는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병실에서 목에 무언가를 주렁주렁 달고 환자복을 입은 채 영어 교지 동아리 면접을 봤더니 예닐곱 되는 지원자 중에 딱 저만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떨어진 이유는 그 환자복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뭔가 제 몸 상태가 평가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뭐, 이제 한참 전 일이 되어버려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너무나도 교지를 만들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서 마음속에 한이 남아 있는 채로 살아갔는데 그러다 지금 여기 문우에서 교지 만들기의 한을 다 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침 질병 얘기를 문우에서의 첫 글로 써버리니 아주 후련하고 통쾌한 기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문우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제게 소중한 친구(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적어도 제게는요.)입니다. 여기에서 한 학기 동안 정말로 배울 점이 많은 분들과 여러 주제로 공부를 같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 사이에서 사적인 말을 늘어놓곤 했지만 저도 언젠가는 그런 통찰을 가질 수 있겠지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문우 사람들과 세미나를 하고 교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졸업 전까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며 뼈를 이곳에 묻을 테니... 문우가 부디 오래 오래 이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소리

제 글과 지난 학기를 되돌아보면 참...우당탕탕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그만큼 정신없는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올해 문우에 들어와서도 새롭게 배우고 해본 것들이 많아 괜히 어색하고 또 뿌듯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 글은 여러모로 제 욕심이 그득그득 담긴 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이렇게 제대로 써본 것도...글쎄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제 첫 글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문우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조조

마감을 2주 앞두고 주제를 알아엮는 사람이 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 걱정 많았던 첫 글이었지만 편집위원 여러분들의 사려 깊은 피드백 덕분에 어찌저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빈틈투성이 초고를 볼때고 도와주신 편집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힘이 되었어요. 언제부턴가 글을 쓰는 게 어려워져서 어떤 글이든 완성하는 것이 올해 목표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하나 달성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문우가 아니었다면 힘들지 않았을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잘 기대어 가고 싶습니다.

단화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어 머쓱하고 부끄러운 기분입니다. 한동안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꽤 크게 제 마음에 자리잡고 있어서 편집회의 내내 못하겠다고 징징거렸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준 모든 문우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많은 글이 모인 문우가 제가 들어온 이래로는 처음이라 낯설면서도 참 행복하네요. 문우라는 공동체가 지금처럼 쭉욱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라며... 그래서 이번 호처럼 다양한 글과 말이 문우를 통해 널리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며... 우리 편집위원들 사랑합니다...

에델 무지로

처음 교지를 쓴 게 벌써 3년이 넘는 일이네요. 3년간 배운 사실은, 교지 쓸 때는 '헛일하는 셈' 치고 써야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필명은 '헛일하는 셈치고 시험 삼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 쓴다고 누가 알아주거나 하려나. 이런 마음가짐마저 없다면 이런 글쓰기는 고난과 역경만 남는 행위이지 않을까요. 이번 글에선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쓰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시도를 해봤지만,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글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디다.

복잡한 것은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명확한 선과 악이 존재하고, 때로는 양비론이 타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했을 때, 그 주장을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지식의 여백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공론장에서 이뤄지는 논의가 정말 스스로의 준거와 지식의 여백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주위의 시선과 공동체의 금기에 스스로의 의견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령 소수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듣자마자 '다수자에 대한 역할은 생각 안해봤나?' 따위의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라기보다는 답을 회피하려는 해로운 시도에 가깝습니다. '소수자가 호소하는 차별이 정말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어떻게 시정하고, 동시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지식과 기준을 점검하고, 공동체 안의 금기와 편견에 맞서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는 일, 그것만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로 나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약성민원 넣는 사람 좀 사라져라!

함함

이번 호 함함의 글에 들어간 것
: 국내 페미니즘 서적
여성서사 관련 논문
여성서사 관련 신문 기사
그리고
◆ 지난 8년 동안의 나의 인터넷 생활

꽤 논쟁거리가 될만한 글을 썼네요...하하...하지만 혼자서 주저리주저리 쓰던 생각들을 글로 길게 풀어내니까 속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ㅎㅎ 여성 서사로 시작했으니 여성 서사 이야기를 하면서 끝낼게요. 이번 글을 한창 쓰던 여름에 딱 개봉한 <발코니의 여자들> 정말 재밌는 작품이라 추천합니다. 전체적인 플롯만 보면 전형적인 복수물인가? 싶지만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감독의 시선, 강간 문화에 대한 은유가 신선해서 재밌게 보았네요. (복수물이라 통쾌하기도 하고요~) 이 영화의 감독인 노에미 메를랑이 주연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도 여름에 보기 좋고, '타여초' 감독인 셀린 시아마의 다른 작품 <위터 릴리스>도 딱 여름에 맞는 여성 서사 영화네요. <러브 라이즈 빌딩>, <섬어 필름을 타고!>, <델마와 루이스>도 여름하면 생각나네요 ~ 어찌 편집후기가 아니라 여성서사 작품 추천이 되어버렸지만...다 좋은 영화니까 즐겁게 감상하시길^^

시골

이번 호에 개인 글을 쓰지는 못했지만, 정리정돈과 독자모임 정리 돕기로 참여하고 다른 글들 피드백을 양껏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글에 마구마구 편지를 거는^^ 재미가 있었네요 ㅎㅎ 질 원망하고 계시진 않겠죠? 그렇다면... 죄송...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복잡복잡 글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우가 참 좋아요. 문우가 자기 경험과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하며 함께 고민하고 배우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하고요.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각기 다른 여러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사그라들지 않고 터져나왔으면 좋겠네요. 모임에서도, 글에서도요. 변혁의 펜 계속 들어봅시다! 정상, 아니 비정상 영업 해봅시다!

니나

돌이켜보면 이번 학기 문우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공부했네요. 저는 같이 읽고 쓰고 공부하는 문우가 좋아요. 글을 쓰는데 많은 용기와 도움을 주신 우리 편집위원들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또 곳곳에서 미안금지!! 라고 외칠 것만 같은 사람들이 여럿 머리를 스쳐지나가네요 ㅎㅎ 처음이라서 더 막막하고 어려웠지만 그만큼 재미있었어요. 잘 빛은 글 한 편 한 편을 한 학기마다 문우랑 같이 써가고 싶어요! 아자아자 나 그리고 문우 화이팅

해로

연대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쓴 글이었는데, 사실 전달을 목표로 하다 보니 글이 너무 건조하지는 않았는지 완성한 지금도 걱정이 됩니다. 에펠 무지로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 글이 마음에 든 적이 없어서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게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첫 기획안에 적었듯 써야만 하는 글이라고 생각했고, 썼습니다. 가능성도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를 가지고 투쟁하시는 정혜 동지를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받으면서요. 편집회의에 함께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 몸담았던 공동체 중 가장 안전하고 즐거웠던 곳이 문우였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변혁의 펜을 높이 들자!

단(丹)

내 이야기를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소중한 경험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도 외로웠던 고민에 공감이 입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깊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고민에 끝없이 빠져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포용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용기내어 말하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계속해서 역동하고 변화하고 흘러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습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백

이번 학기는 개인적으로 무척 바쁘게 보낸 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름까지지요. 그 사이에서 처음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문우여서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새로운 생각들도 많이 들으며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무턱대고 글도 써 보려고 노력했는데, 미숙하기도 했고 또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손가는 대로 썼던 글이 아닌가 싶어요.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있었다면 좀 더 나은 글이 되었을까 하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완성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도 이번에 새로이 알았습니다. 도와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평

세월이 손살같이 흐른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문우에 들어온 지도 벌써 일 년! 고생하고 씨름하면서 글을 가까스로 마감하는 것도 벌써 두 번째네요. 언제까지나 문우에 남아서 내 생각과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더욱 소중한 이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문우 여러분, 언제나 고마워요! 그리고 글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어쩌면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를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a memo.

 <p>(주)제이앤이 www.jnekorea.com</p> <p>대표이사 김재호 (경영64)</p> <p>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 (아람동) 분당테크노파크 A동 610호 Tel.(031)709-8500 Fax.(031)709-8533 공장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장정길로 729 Tel.(041)541-6300 Fax.(041)541-6303</p>	<p>연세내과의원</p> <p>원장 고완 (의학74)</p> <p>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514 주공아파트 상가 2층 Tel.(031)411-0090 Fax.(031)486-0644</p>	<p>미래경영세무회계사무소</p> <p>공인회계사 임명락 (경영86)</p> <p>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2 유산빌딩 2층 Tel.(031)983-3011 Fax.(031)983-3013</p>	 <p>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p> <p>이사장 김철수</p> <p><small>서울시 관악구 남산동로 1838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명리병원역 1번 출구 Tel.1677-8876 Fax.029879-1610 www.newyh.com</small></p>	<p>이내과의원 - 공단건강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 -</p> <p>원장 이욱용 (의학68)</p> <p>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64 서교제일빌딩 3층 Tel.(02)332-3004 Fax.(02)332-5444</p>	<p>(주)에이디티</p> <p>대표이사 김상태 (기계77)</p> <p>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영로185길 4 Tel.(031)498-8655 Fax.(031)431-6840</p>
<p>강북연세이비인후과</p> <p>원장 이정준 (의학85)</p> <p>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52 y스퀘어빌딩 7층 Tel.(02)989-7587 Fax.(02)989-7589</p>	<p>연세이앤미치과</p> <p>원장 황두연 (치의학89)</p> <p>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1 용신아트프라자 3F Tel.(031)484-9004 Fax.(031)405-9004</p>	<p>예림상사</p> <p>대표 최기종 (회공72)</p> <p>경기도 과천시 관문로92 일스타이트 과천중앙 101동 1116호 Tel.(02)3275-0503</p>	<p>연세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김&장 법률사무소</p> <p>변리사 김윤기 (기계90)</p>	<p>범무법인 범승</p> <p>변호사 박지연 (영문91)</p> <p>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69 (서초동, 부림빌딩) 302호 Tel.(02)782-9980</p>	<p>신태석세무회계사무소</p> <p>회계사 신태석 (경영81)</p> <p>경기도 김포시 중구로 19 유산빌딩 2층 Tel.(031)984-1941 Fax.(031)984-1940</p>
<p>단계부리깊은치과의원</p> <p>원장 정시동 (치의학86)</p> <p>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65, 2층 Tel.(033)743-4025</p>	<p>서초HR노무법인</p> <p>대표노무사 강낙원 (법학81)</p> <p>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 사람빌딩 503호 Tel.(02)3481-6667 Fax.(02)712-2337</p>	<p>연세이비인후과</p> <p>원장 조남훈 (의학81)</p> <p>경기도 부천시 역곡로 3 Tel.(032)345-3600 Fax.(032)345-3601</p>	<p>백인합동법률사무소</p> <p>변호사 전병남 (법학83)</p> <p>서울시 서초구 법원로2길 17-5 백영빌딩 4층 Tel.(02)536-4343 Fax.(02)6280-4347</p>	<p>문우</p>	<p>연세치과의원</p> <p>원장 임준형 (치의학89)</p> <p>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47번길 5 Tel.(051)243-2275 Fax.(051)243-2276</p>
<p>청화유업(주)</p> <p>대표이사 민광수 (회공57)</p> <p>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용남동로 598 Tel.1644-8934 Fax.(041)642-8935</p>	<p>범무법인(유) 지평</p> <p>변호사 이석재 (법학94)</p> <p>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Tel.(02)6200-1960 Fax.(02)6200-0820</p>	<p>삼남제약(주)</p> <p>대표이사 김호택 (의학75)</p> <p>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77 Tel.(041)754-3771~5 Fax.(041)752-0086</p>	<p>범무법인 세종</p> <p>변호사 이세리 (영문93)</p> <p>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23층 Tel.(02)316-4114 Fax.(02)756-6226</p>	<p>(주)뷰텍이에스</p> <p>대표이사 이종길 (전기66)</p> <p>서울시 강서구 여준로 217 가람테크노타운 905호 Tel.(02)3665-5900 Fax.(02)3665-5996</p>	<p>(주)포산인더스트리</p> <p>대표이사 임경화 (독문82)</p> <p>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0-21 크리스탈빌딩 10층 Tel.(031)902-5014 Fax.(031)902-5016</p>
<p>우리회계법인</p> <p>대표이사 김호준 (경제85)</p> <p>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86길 17 육인빌딩 3층 Tel.(02)569-1591 HP.010-8948-9894</p>	<p>신현승내과의원</p> <p>원장 신현승 (의학80)</p> <p>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85 우신프라자 3층 Tel.(032)582-8575 Fax.(032)582-8576</p>	<p>와우글로컴(주)</p> <p>대표이사 김남형 (고위56기)</p> <p>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 75 와우빌딩 4층 Tel.(02)2699-3660 Fax.(02)2699-3662</p>	<p>연세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심영환 ·최선엽</p>	<p>신서경치과</p> <p>원장 신유정 (치의89)</p> <p>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111 Tel.(051)505-2842 Fax.(051)506-9517</p>	<p>범무법인 선승</p> <p>변호사 홍미정 (국문93졸)</p> <p>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88 화승빌딩 4층 Tel.(02)598-2688 Fax.(02)521-6151</p>